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 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 합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사진 VOL.548
한국사진
www.pask.net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vol. 548 March 2026.3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한국사진작가협회

3 2026 March

ⓒ이향룡_그들만의 버스킹_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작

(입회점수 있음) **제44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접수기간】 2026. 4. 21(화) ~ 22(수)

【접수시간】 10:00~18:00 도착분

- 출품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유해하지 않는 국내외 발표되지 않은 사진작품
- 출 품 료 : 1인당 공모전 부문 90,000원 / 추천작가 부문 90,000원(작품집 포함)
- 작품규격 : 공모전 부문 / 추천작가 부문
  - 1) **공 모 전 부문** : 작품은 긴변 기준 50cm ~ 77cm 사이의 규격으로 인화하여 대지(우드락) 부착하여 제출. (단, 대지(우드락) 포함 90cm를 초과할 수 없음)
  - 2) **추천작가 부문** : 11″ × 14″ 인화지 작품(우드락 미부착) 1점을 출품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미발표작에 한함)
  - 3) 공통사항 : 출품작과 동일한 내용의 8″ ×10″ 인화지 작품을 출품원서와 함께 제출요망.
  - 4) 원서기입 제출시 필히 필수기재 항목을 모두 기입 후 제출요망.
  - 5) 공모전 분야 출품시 출품작에 해당되는 부문별 분야를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해야 함.
- 원서배부일 : 2026년 3월 예정 ~ 접수일까지
- 원서배부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다운 활용, 지회 · 지부, 주요현상소 등
- 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본 협회 교육홀
- 심사일시 : 2026년 4월 24일(금)
- 심사장소 : 추후공지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결과발표 : 2026년 4월 중

▶ 공모부문 출품시 유의사항

출품작의 출품 부문을 출품서와 출품표에 기재 접수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 기타로 분류됩니다.

– 공모 부문

1. 인물 · 다큐 / 2. 풍경 · 생태 / 3. 디지털 창작 및 특수사진 / 4. 관광 · 스포츠 / 5. 기타

▶ 출품료 입금계좌

국민은행 878301-01-264650

(예금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시 출품자와 동일 입금자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작 전시안내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개전 및 시상일시 : 2026년 5월 중 (상세일정 추후공지)

○ 시상장소 : 추후공지

○ 전시기간 : 2026년 5월 ~ 6월 중 (상세일정 추후공지)

○ 전시장소 : 추후공지

시상내역

대 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 수 상	2점
특 선	(수상작품의 10% 이내)
입 선	(출품작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추천작품상	3점 이내

※ 작품반출

○ 심사발표 후 낙선작 반출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10일 이내 반출 가능.

○ 반출방법 : 소속 해당 지회(광역시, 도지회), 직접수령, 폐기만 진행 예정(포장 및 택배비 부과 될 수 있음. 단, 출품시 접수한 8″ × 10″ 인화지는 반출처리 하지 않음)

– 기간 내 미수령시 폐기처리 됨.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작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의 책임지지 않음)

※ 기타유의사항

○ 수상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영화과 영상예술특기자 사진부문)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 사용권을 통해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 문의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02-2655-313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주관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Contents

March 2026 Vol.548

Cover Story

김기수(대전지회) – 경계의 단면
제64회 한국사진 문화상 작품상 수상

03 **Headnote**
올해도 힘차게 달려갑시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백만종

06 **특집**
유수찬 이사장 "장학재단 설립은 협회 위상 확고"
제65회 정기총회서 회원들의 예술적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 실천 당부

12 **특집**
제64회 한국사진 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제63회 전국회원작품 지상전 우수 작품상

40 **출판광고**
[배복형 신간출판] 풍경에 길을 묻다
대한민국 전국 풍경사진 지침 교재 – 배복형(충주)

44 **전시광고**
OCEAN KOREA
AURA(아우라)

48 **전시광고**
[임효례 개인전] 곁에 있어 고마운 너
교감의 언어, 문화의 무늬 : With You – 임효례(군포)

52 **지상전 01**
[이성록 사진전] 경계의 기록
필름 너머 디지털 시대, 성수동을 담다 – 이성록(광진구)

56 **Photo Essay 01**
밤과 낮의 교차점, 그 경계선에서 말없이...
오름, 머무는 시간 Oreum, A Moment of Stillness – 이성길(제주)

60 **Photo Essay 02**
바람이 불어오는 그 곳, 잊히지 않을 그 이름
파타고니아 – 김윤설(광주)

64 **Photo Essay 03**
그 해 그 바다, 동백은 지지 않았다
제주 4·3의 붉은 생명 – 장일미(평택)

올해도 힘차게 달려갑시다.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우리 협회 제30대 집행부가 어느덧 임기 4년 차,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사진예술 교육사업의 지속과 정착, 사진대전과 사진축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올해에는 장학재단 설립과 인터넷 신문 발행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협회는 명실상부하게 한국 사진계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위상을 확립해 왔으며, 나아가 사진진흥법의 법제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년에 비해 회비 미납으로 정권 대상자가 되는 회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회원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일부 지부·지회 활동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회원들이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리 협회의 근간은 지부와 지회입니다. 지부장, 지회장 및 임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지부·지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가입 점수를 취득하고 적잖은 회비를 납부하며 입회한 회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진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협회에서 선정된 우수지부, 우수지회 및 우수회원에 대해서는 매년 5월 개최되는 PASK AWARDs 시상식을 통해 시상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례는 협회 월간지 한국사진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회원 여러분께 귀감이 되고 함께 본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새봄의 기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활발한 사진예술 활동을 기대합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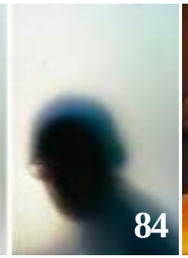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백 만 종

Contents

March 2026 Vol.548



68 **지상전 02**
멈춘 시간 위에 다시 피어나는 삶
오래된 계단에 손끝을 스치며 – 구미숙(양천구)
낡은 돌계단에 머문 삶 – 연도흠(화성)
잊힌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다 – 류중열(증평)

사진강좌

74 **Photo Theory**
사진의 본질, 어떻게 달라졌나?
이미지 시대의 캐논과 사진가의 역할 II – 배복형(상임이사)

80 **KYOTOGRAPHIE 2026**
Dahomey Spirit(다호메이 정신)
줄리엣 아넬(프랑스) Juliette Agnel – 노성진 편집장

84 **Review & Preview**
사진이 이끈 시대별 미술 흐름 한눈에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 김재훈

90 **Travel destination**
실패하면 패가망신 성공하면 부국강병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이야기 – 최승언

협회소식

94 **Society News / Member Plaza**
제65차 정기총회 결과,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전시소식

103 **Gallery**
임효례 개인전 외

한국사진 www.pask.net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날 | 2026년 3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종
출판팀장 | 손석윤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점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사진예술대학 제6기 모집

(2026년 3월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신청 자격요건
1. 비회원의 경우 : 본 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2. 회원의 경우 : 사진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모집인원
50명 이내(선착순 마감)

교육과정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대면 및 온라인 강의 진행
: 1학기, 2학기 과목은 최종 교육과목 조율에 따른 결정 후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예정

수강기간 (단, 협회 상황에 따라 개강 및 종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개강 2026년 3월 20일(금) ~ 7월 24일(금)
2학기 개강 2026년 8월 28일(금) ~ 12월 18일(금)
기획전시회 2027년 1월 중 (추진예정)

수강방법 및 수료조건
사진예술대학 강의실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졸업작품전시 필수 참여
출석 80%이상 참여, 대면수업 월1회 이상 필수참여, 과제이수 40%

학기별 수강료 : 1학기당 일금 3,000,000원 (2학기 총 6,000,000원)
카드납부 가능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기한 : 2026년 3월 개강 이전까지

사진예술대학 제6기 강의장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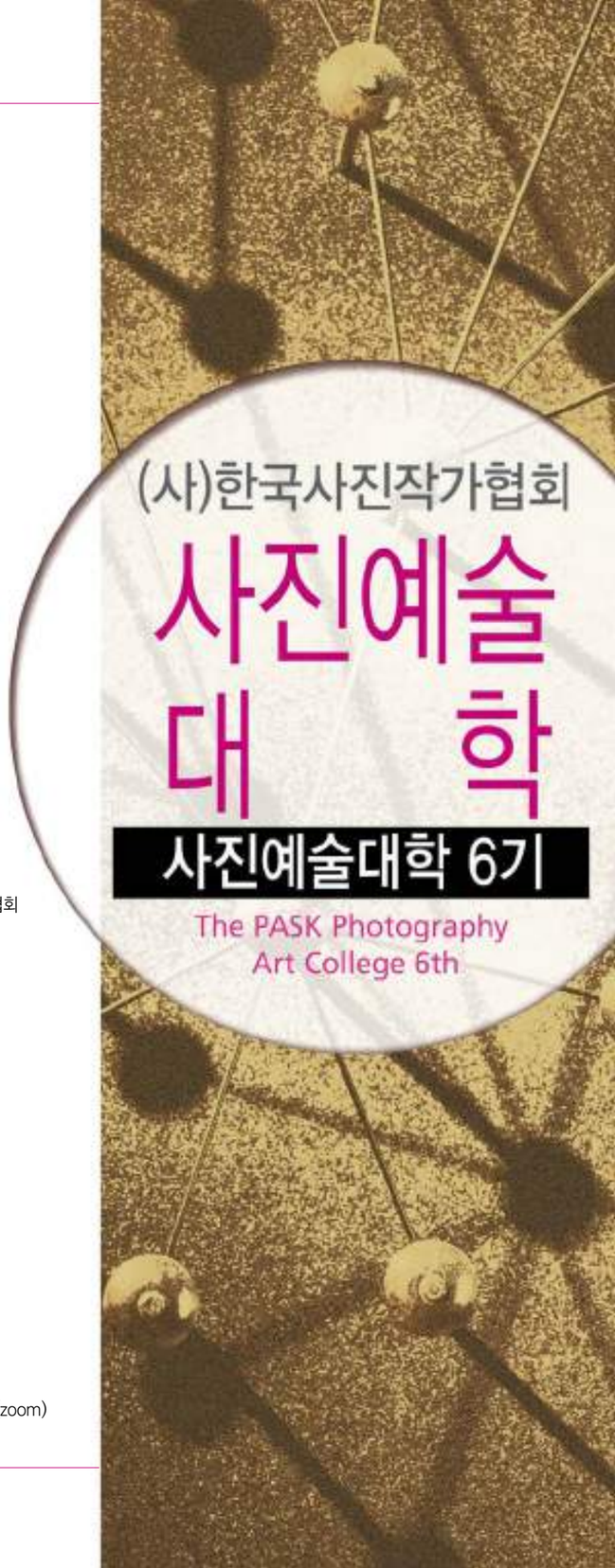
이론수업
1. 목동, 예술인회관 9층 강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2. 크리틱 및 실습수업 장소는 추후 공지

실습수업
1. 강의별 추후 공지예정
2. 사진촬영 출사 (상황에 따라 조율)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02-2655-3131
이메일 문의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이론수업 시 부득이 대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병행(zoom)
모든 강의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수강 가능



유수찬 이사장 “장학재단 설립은 위상 협회 확고”

제65차 정기총회서 회원들의 예술적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 실천 당부

글,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_오건호(보도사진분과 부위원장, 홍보위원회 사무국장) 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가 28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의사봉을 잡은 유수찬 이사장은 협회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하며 협회의 대외 영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장 전경

제65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장학재단 설립을 상세히 설명하는 유수찬 이사장

지난 2월 28일(토)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층 공연장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형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수찬 이사장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총회 개회에 앞서 지난 1년간 협회 주요 행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가 이어졌다. 성원 보고에 따르면 총원 9,028명 중 현장출석 571명, 위임출석 2,422명으로 총 2,993명이 출석해 정관에 따른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가 성원되어 개회가 선언됐다.

유수찬 이사장은 이날 개회 인사로 “장학재단 설립은 협회의 위상을 일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며, “사진을 사랑하는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예술적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상정된 안건은 ▲감사보고 및 2025년도 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대손상각 처리 ▲발전기금 관리규정 개정 및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 승인 ▲기타 안건이다.

이덕만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였으며 2026년 1월 17일 회계감사, 1월 21일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보고되었고 별다른 이의 없이 승인됐다.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김형준 사무처장은 협회 교육사업 관련 안내와 12월 초 예정인 대한민국사진축전 추진 계획을 설명했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음 안건인 대손상각 처리에 대해서는 자퇴·제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회계상 정리하는 절차임을 설명했고 이 역시 승인됐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기총회 개회 전 회원들과 인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가장 주목된 안건은 발전기금 관리규정 개정과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 승인 건이었다. 설명에 따르면 장학사업은 제29대 김양평 이사장의 1억 원 기탁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150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적립금은 약 3억 2천만 원이다. 추가 기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유수찬 이사장이 4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공개됐다.

일부 참석자가 재단 설립 이후 수익사업 구조와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문제를 질의했으며 집행부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로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 끝에 장학재단 설립 안건은 현장 출석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장학사업이 협회의 공익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기타 안건에서는 공식 사진대학 설립 구상이 언급됐다. 구체적 실행 계획은 향후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총회를 진행하는 동안 합리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매우 품격있게 진행되어 많은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총회는 오후 2시 30분경 폐회 하였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 개회 따른 식순으로 국기경례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이사장단, 고문단 및 총회 참석 회원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는 이덕만 본부감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 사회를 진행하는 김형준 본부 사무처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
장학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하는 배택수 상임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 폐회를 가결하는 유수찬 이사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5차 정기총회에 참여한 회원들 전경 모습

2026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대회일시 5월 16일(토) 오전 9시30분 (우천불구)

대회장소 남산골 한옥마을(예정) (서울시 중구 퇴계로 34길 28)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3,4호선 충무로역 4번출구

공모 요강

대회일시 2026년 5월 16일(토) 오전9시30분 (우천불구)
대회장소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시 중구 퇴계로 34길 28)
참 가 비 30,000원
참가자격 전국 모든 사진애호가 (핸드폰 촬영사진포함)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및 당일접수
출품내용 대회당일 모델 중심으로 촬영한 내용 (식전행사포함)
작품규격 11"X 14" 컬러 및 흑백
출 품 수 1인당 4점이내
출품방법 출품표에 성명. 작품명. 연락처. 주소를 기입후 작품 뒷면에 부착 (복사 사용 가능)
접수마감 2026년 6월 26일(금) 도착분
접 수 처 (07995)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층 1701호 한국사진작가협회
전화문의 02-2665-3131~3

시상 내역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시상품
은상 2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시상품
동상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시상품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장려상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우수촬영지도위원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은뱃지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출품작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심사 및 전시

심사일시 7월 8일(수)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 될수있음)
심사장소 추후 공지
심사발표 7월 10일(금)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게시 www.pask.net
전시 및 시상식 추후 공지

기타(유의사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수상작의 저작권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주최 측은 전시 및 홍보 등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 디지털 합성 및 작품 테두리를 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함
- 대회당일 작품이 아닌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시 상권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 유보됨
- 입상자(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는 필히 시상식에 참석 (대리참석 가능)
- 출품된 모든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촬영대회 당일 경품추첨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 : 창작사진분과위원회**

YoungWorld 영월 YeongWol

2026년 제59회 단종문화제 전국사진촬영대회

행사기간 2026. 4. 24(금) ~ 4. 26(일)

- **행사기간** 2026년 4월 24일 ~ 4월 26일
- **참가자격** 전국사진 애호가
- **대회장소** 제59회 단종문화제 행사장(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61-9. 동강둔치 촬영대회 부스)
- **촬영지역** 제59회 단종문화제 행사장 전체, 영월군 일원
- **촬영내용** 작품내용은 단종문화제 기간 촬영한 작품, 영월 10경, 영월의 숨은 명소와 영월의 자연과 지역 특색을 잘 표현하여 영월을 홍보할 수 있는 작품
- **참가비 및 출품비** 20,000원(단, 중식 및 기념품 제공 없음)
- **접수마감** 2026년 5월 13일(수) (도착분) ● **작품규격** 11x14 inch (컬러 및 흑백) 4점 이내
-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출품표 부착(작품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1인 4점 이내)
- **작품접수** [우:2622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871-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 **연 락 처** 지부장 010-3353-6224 / 사무국장 010-4194-9004
- **심사일시** 2026년 5월 16일(토) 13:00 ~ (예정) ● **심사장소** 영월군청 대회의실(예정)
- **심사방법** 사협 추천 심사위원, 공개심사 ● **결과발표** 2026년 5월 18일(월) 한국사협 홈페이지
- **시상내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시상내역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 상장 및 작품구입비 100만원
	은상 2점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상 :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 50만원
	동상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장상 :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 30만원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장상 :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 20만원
	장려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장상 : 상장 및 작품구입비 각 10만원
	입선 50점 (출품작2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장상 : 상장

- **전시기간** 2026년 5월 23일(토)~5월 27일(수) (예정) ● **전시장소** 영월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 **시상일시** 2026년 5월 23일(토) 14:00 (예정) ● **시상장소** 영월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 **작품반출** 출품작은 반출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시상식 후 상장과 함께 발송함.
- **전시기간** 2026년 5월 23일(토) ~ 5월 27일(수) 예정
- **기타사항**

– 수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4일 이내 원본 파일 제출(jpeg화일, 장변 최소 3,000픽셀 이상) E-mail : sansaesoli@hanmail.net(메일 제목은 이름과 작품명 기재 / 미제출시 상권취소)
– 작품매입비는 세금과 송금수수료 공제 후 지급(농협계좌는 수수료 없음)
– 출품된 작품은 반출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시상식 후 상장과 함께 발송함.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지적재산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자 창작자에게 있음.
– 출품작의 초상권 등 제반 문제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동일,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 되었을 경우, 상권 취소되며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아 입회가 유보됨.
– 주관 · 주최 · 후원측에서는 수상작의 영상 및 홍보 자료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 결정에 의함.

■주 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후 원 : 영월군·영월문화관광재단·(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영월FM공동체라디오·인터넷신문 영월인

제 64회
한국사진 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심사일 : 2026년 1월 20일(화) 심사장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층 회의실
심사위원장 : 유수찬 / 심사위원 : 김종호, 조건수, 김양평, 홍창일, 강부만

작품상

김기수(대전)
백제사진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

출판상

김삼경(진주)
'변천(變遷), 60년의 세월을 담다'
경상남도사진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
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학 강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역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도지회장 역임

이강석(통영)
'통영, 그 바람의 선율'
2025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사진문화상
2025 한국유네스코유산 세계문화유산 기록프로젝트 천개의 카메라(경남동부) 참여 및 전시
2025 개인전, 통영_그 바람의 선율, 사진집 출간
2022~2023 한. 베트남(호치민시) 국제사진교류전 4회
2026 다큐멘터리 통영 남해안 도서지방 (사라지는 시간들) 기획촬영 중

최진식(창녕)
'창녕 관룡사'
2025 개인전, 창녕 관룡사, 사진집 출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녕지부 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사진문화상

윤영녀(광주)
'산빛, 순간과 영원의 경계에 서다'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광주광역시 사단합동전 추천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디지털아트분과 위원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제1기 수료

이수인(익산)
'한민족의 구심점 독도'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인부스전 참여, 양재 aT센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 부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운영간사

황치길(울산)
'마음, 행복으로 물들다'
울산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정수사진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역임

특별공로상

김기태(인천)
인천광역시사진대전 대상
제물포사진대전 특선
광명 전국 빛사진공모전 은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윤리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간사

장일미(평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평택지부 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평택지부 평택국제사진축전 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스톡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사)한국예총 평택지회 수석부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제5기 회장

윤민식(송파)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전국회원작품 지상전 우수 작품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송파구지부 감사
에이스 법무사법인(유한) 대표법무사

한낙영(중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중구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역임

지회지부 발전공로상

지부장 박만석
(고흥지부)

지부장 정하준
(괴산지부)

지부장 편선환
(서산지부)

지부장 엄태수
(안성지부)

지부장 김윤정
(의왕지부)

지부장 정봉주
(평창지부)

우수회원상 선정

강경숙(광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광주호남매일 편집부 부국장
광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시간강사
문화예술체육대학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역임

강병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대전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전 우수작품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상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

강태선(강서구)
서울특별시사진대전 특선
서울시지회 회원전 우수작품상
제59회 전국회원전 우수작품상
(사)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장 표창
강서구청장 표창 외 다수

강환춘(강북구)
개인전 4회 개최
광명 빛사진공모전 금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북구지부 정회원
초등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목현장 수상

권경애(구미)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정수사진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환경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전문위원회 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역임

김남현(남원)
대한민국 정수사진대전 대상
전국사진공모전 금상 외 다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 부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꽃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자

우수회원상 선정

김수용(양산)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다수
제52회 회원작품 10걸상 수상
워싱턴국제사진공모전 금상
해외관광청 사진전 우수상
불교사진 공모전 동상

김정태(마포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포구지부 정회원
충무로 동경아트 대표

김진철(전주)
전라북도 사진대전 특선
전라북도 1000리길 사진공모전 대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도지회 정보간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물사진분과위원회 위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로상

김한용(안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위원회 운영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학술평론분과 부위원장 역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4기 촬영지도위원회 회장 역임

남성희(연천)
경기도사진대전 특선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연천지부 사업간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기촬영지도위원회 운영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환경사진분과 운영위원

류민형(부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교육간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강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사진아카데미 포트폴리오 강사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사진학과 강사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강사

박상화(포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사진의 섬 송도 아트페어 참여, 포항송도 코모도호텔
2022 시간의 숲 갤러리 포항, 기획
2024 포항시 우수작가 초대전, 포항시중앙아트홀
포항시노인복지관 사진반 강사

박성혁(대구)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대구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박용문(칠곡)
경상북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심사자격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칠곡지부 지부장 역임

오문자(성남)
2024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참가, 양재 aT센터
2025 베이징 사진주간 "한국사진작가 특별기획전" 참가
아트 포토스 기획전 참가
포토 오로라 기획전 참가
갤러리 카페 본알레 상설 작품전시

유영식(김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북도지회 사무국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김천지부 사무국장 역임

윤원(수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지부장

이명우(대전)
대전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지회 부지회장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예술문화상

이미숙(고양)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양지부 사무국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기 촬영지도위원회 위원
고양특례시장 표창

우수회원상 선정

이범성(의정부)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삼양케이지 대표
서울지검검찰청검사장 표창장
법무부장관 표창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 공로상

이용옥(의정부)
2023 개인전, 별이 걷는 밤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간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간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사)한국예총 의정부지부 감사

이유성(송파구)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전주 한옥마을 전국촬영대회 금상
서울특별시 지회전 우수작품상

이주섭(강릉)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 부지부장
강원일보 객원 사진기자
강릉송양초등학교 사진강사
강원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이호범(대전)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대전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부지회장
사진교육지도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우수상

전병식(의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 사업간사
군포문화원 회장 역임
전국사진공모전 다수 입상 및 입선

전종구(산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산청지부 감사
행정수도세종전국사진공모전 은상
대한민국정수사진대전 입선외 다수

정강주(춘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춘천지부 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심사자격자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강원지역학회장
춘천예총 부회장

정의목(영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지부장

정희하(영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지부 사무국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6기 촬영지도위원
아름다운 한국의 산하 풍경관광사진대전 최우수상
채널경북 평생교육원 사진반 강사

최남진(남양주)
한양스튜디오 대표
남양주지부 정기회원전 및 남양주예술제 회원전 참여
풍양사진연구회 정기회원전 전시참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부 지부장 역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부 감사 역임

최미숙(인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간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환경사진분과위원회 위원
인천시 계양구예술인협회 사진위원회 간사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우수상
제물포사진대전 우수상

최원준(제천)
한중사진작가협회 교류전 참여
제천농림축산식품부 촬영대회 대상
전국사진촬영대회및 공모전 다수 입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감사 역임

제 63회
전국회원작품 지상전 우수 작품상

심사일 : 2026년 1월 20일(화) 심사장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회의실
심사위원 : 박헌재(위원장) 김수진, 김화연, 이점용, 최정규

작품상

김기수(대전) | 경계의 단면

백제사진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

강성돈(대전) | 창밖의 여인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백제사진 대전람회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대전광역시사진대전 대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기획간사

고광중(광주) | 아침에 빛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환경사진분과위원회 위원
비경사진클럽 운영자(since 1999)

국향숙(양천구) | 투영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인전, 양재aT센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전문위원회 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천구지부 감사

김윤정(의왕) | 뒤안길

경기도사진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 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심사자격자
페르소나 대표

김은연(밀양) | 시선

경상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사진문화상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도지회 부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 지부감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지부 부지부장 역임

류해상(합천) | 그물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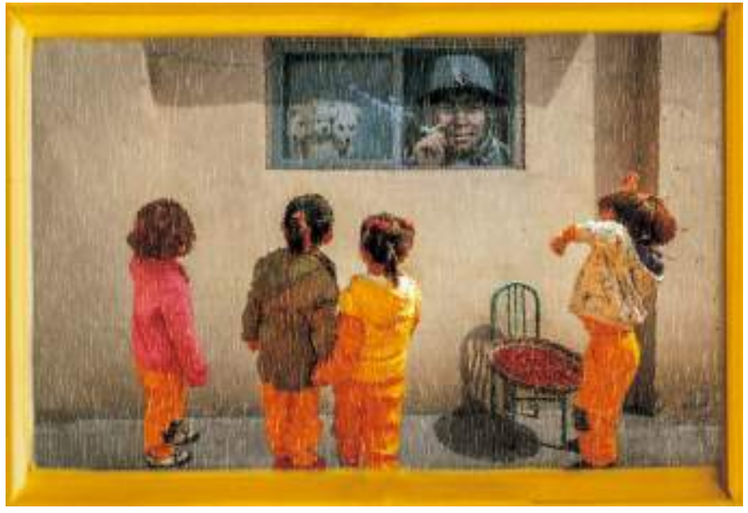
공무원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정수사진대전 추천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합천지부 사무국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도지회 업무간사

박곡희(여수) | 무희

전라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전라남도 사단합동전 추천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여수지부 사무국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산악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박승호(용인) | 호기심

(사)한국사진자가협회 본부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용인지부장
(사)한국예총 용인지회 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심사자격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지도자 및 촬영지도자



오봉희(전주) | 촛불잔치

전라북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홍보간사

이석준(송파구) | 여의도 빌딩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및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송파구지부 부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4기 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총동문회 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환경사진분과위원 부위원장

조영호(부여) | 세계로

충청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충청남도사진대전 대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여지부 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채금순(과천) | 유빙

경기도사진대전 추천작가
경기도사진대전 대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공로상
과천예총예술제 과천시장 표창

최영규(강남구) | 아침 강변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초대작
백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및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최인옥(광주) | 행복한 동행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백제사진대전 초대작가
광주매일신문사진대전 초대작가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국제사진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2기 수료

· 제30대 유수찬 이사장 4,000만원 기탁 · 심재안 위원장 2,000만원 기탁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향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2024년 장학금 기탁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훈 서울지회 부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윤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2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례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재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종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효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오만태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윤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성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흥기 이사 30만원
조동희 강동구지부장 20만원
김옥진 이사 30만원
김양호 이사 30만원
강종관 부산지회장 30만원
윤판문 이사 50만원
김정이 부산지회 부지회장 10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감사 10만원
신종천 홍보위원회 위원 10만원
김팔영 광주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노연섭 순천지부 회원 10만원
김재업 이사 100만원
최차열 부이사장 100만원
이준택 전북도지회 감사 30만원
김동욱 순천지부장 30만원
이내교 이사 100만원
박승호 이사 50만원
김윤정 이사 100만원
2024년 장학금 지급 2,400만원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150만원
박헌재 자문위원 100만원
반봉현 자문위원 100만원
조병두 자문위원 100만원
서성강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은효진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김남규 자문위원 50만원
신성우 자문위원 50만원
윤종근 자문위원 50만원
이판수 자문위원 50만원
윤상섭 자문위원 50만원
김동민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완기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박용덕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달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윤식 자문위원 30만원
신우식 자문위원 30만원
안판종 자문위원 30만원
양범석 자문위원 30만원
오상석 자문위원 30만원
임계환 자문위원 30만원
홍성광 자문위원 30만원
김경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삼경 자문위원 20만원
김석원 자문위원 20만원
김은곤 자문위원 20만원
김종호 자문위원 20만원
박국인 자문위원 20만원
박충순 자문위원 20만원
배원태 자문위원 20만원
오정균 자문위원 20만원
윤석환 자문위원 20만원
이명환 자문위원 20만원
정두원 자문위원 20만원
정해선 자문위원 20만원
조용진 자문위원 20만원
최갑수 자문위원 20만원

■ 2025년 장학금 기탁

강돈영 이사 30만원
강경희 자문위원 30만원
박해섭 이사 50만원
민웅기 이사 30만원
산악사진분과위원회 50만원
양성근 나주지부장 20만원
하봉걸 이사 50만원
이창훈 이사 30만원
김종호 고문 20만원
박인호 이사 30만원
정재문 경기도지회장 50만원
한용상 이사 30만원
전영복 자문위원 20만원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100만원
서산지부 20만원
한병률 운영자문위원 20만원
박노성 운영자문위원 20만원
김복순 이사 100만원
김효숙 자문위원 30만원
황진이 군포감사 50만원
오기종 장학위 부위원장 1,0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송파구지부 200만원
이연숙 이사 200만원
권경애 환경분과위원장 30만원
이기준 서산지부 20만원
장흥균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2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전태만 울산지회장 20만원
강우순 울산부지회장 1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사무국장 10만원
최진양 울산홍보간사 10만원
안광수 춘천예총회장 20만원
드론사진분과 100만원
박윤창 자문위원 100만원
박성혁 대구지회 회원 300만원
임성동 이사 50만원
조치호 강남지부장 30만원
학술평론분과 100만원
박병철 정읍지부 회원 100만원
양경창 자문위원 1,000만원
김시묵 부이사장 200만원
김화연 이사 50만원
김삼택 이사 3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최근태 이사(공주지부장) 100만원
이혜경 공주지부 사무국장 30만원
조은자 공주지부 재무간사 30만원
이창선 공주지부 회원 3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전태만 이사 100만원
임성동 이사 100만원
전태국 안동지부장 50만원
최덕환 익산지부 회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김정희 안동지부 회원 2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우숙자 이사 20만원
이경래 본부감사 10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20만원
김영록 이사 30만원
오명숙 이사 3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배경희 천안지부 회원 10만원
윤보상 이사 100만원
김명옥 이사 30만원
김문호 이사 30만원
조성근 자문위원 20만원
박순정 대외협력부위원장 100만원
오만태 이사 100만원
오재용 광주지회 회원 500만원
임혜숙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김홍찬 대전지회 회원 20만원
황일영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300만원
신명현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윤지한 인천지회 회원 2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정연수 이사 100만원
국향숙 양천구지부 사무국장 10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백승의 장학위원회 감사 150만원
박옥렬 강릉지부장 2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70만원
최연근 이사 200만원
황길연 이사 100만원
윤기옥 은평구지부 회원 500만원
윤판문 광주지회장 5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회원 20만원
박건태 이사 30만원
이욱진 다큐사진분과위원장 2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정재문 이사 50만원
손홍현 광주지회 회원 30만원
황치길 자문위원 30만원
김경복 서울지회 회원 50만원
최경순 하남지부장 3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 100만원
장준복 스포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기복 수원지부 회원 20만원

장학재단 설립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께,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사진예술의 미래를 밝히고, 젊은 인재들이 창작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사진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이에 협회는 장학재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기금 모금에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성도 큰 힘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미래 사진예술을 이끌어갈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 재 안**

장학기금 모금계좌. 국민은행 293201-04-258248 (사)한국사진작가협회

2026년 2월 기준

염미영 수원지부 회원 10만원
최현동 광주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이재규 증평지부장 50만원
누드사진분과위원회 30만원
이종석 이사 50만원
한현정 홍성지부 회원 20만원
조길호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장현종 여수지부장 30만원
신용식 홍성지부 회원 10만원
워싱턴지부 60만원
이종면 영등포구지부 회원 10만원
정금화 강동구지부 회원 100만원
이윤순 이사 100만원
석도상 산청지부장 50만원
강신재 자문위원 10만원
이애영 중랑예총회장 100만원
채석근 특수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조선일 인천지회장 20만원
신명현 충북도지회 사무국장 10만원
어재선 평창지부 사무국장 10만원
김대중 청주지부장 20만원
최영근 당진지부장 30만원
의왕지부 100만원
손영자 동작구지부 회원 30만원
구미숙 양천구지부 회원 100만원
장영길 자문위원 100만원
서산지부 일동 310만원
정강주 춘천지부장 10만원
김희섭 구리지부 회원 10만원
최태용 자문위원 30만원
정영섭 양평지부 회원 10만원
선종백 부이사장 100만원
송구진 전주지부 감사 50만원
김호경 동작구지부 회원 10만원
이윤순 충주지부 회원 50만원
이호규 대구지회 지회장 30만원
김오환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박현숙 대구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배영희 대구지회 사무국장 10만원
김문영 대구지회 사무차장 10만원
김춘도 이사 30만원
이희수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300만원
김철수 이사 30만원
고미선 여주지부 회원 10만원
이상영 이사 100만원
박용득 구미지부 회원 100만원
이승모 금산지부 부지부장 10만원
김종철 금산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오원석 대전지회 감사 30만원
진광준 구미지부 부지부장 30만원
박영숙 대구지회 회원 30만원
김정인 송파구지부 회원 100만원
백승의 아카데미 총동문회장 100만원
오문자 성남지부 회원 200만원
오성조 자문위원 50만원
김광재 촬영지도위원 사무국장 10만원
박석관 이사 50만원
정건영 자문위원 100만원
박만석 이사 100만원
신영식 광양지부 지부장 100만원
김형준 사무처장 300만원
신윤호 순천지부 간사 30만원
홍종복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2025년 장학금 지급 3,100만원
오길준 순천지부 회원 30만원
신경애 이사 90만원

■ 2026년 장학금 기탁

장일미 평택지부장 400만원
고양지부 일동 50만원
김정희 순천지부 간사 30만원
손석윤 이사 150만원
장봉주 평창지부장 30만원
고성상 평창지부 회원 10만원
김도운 평창지부지부장 10만원
반순화 평창지부 간사 10만원
황영구 포항지부장 10만원
박상화 포항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양승옥 장수지부장 50만원
최원준 제천지부 회원 3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50만원

현재 잔액 331,150,418원

Haida

렌즈의 AF 장치에 영향을 최소화한 적절한 자력

하이다 마그네틱 필터

ND 8, 16, 32, 64, 1000, CPL, 그라데이션 등
촬영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 선택 가능

카메라 렌즈 클리닝 키트
CAMERA & LENS CLEANING KIT

블로어, 극세사, 청소용 붓, 핀슬, 센서 청소도구 등 필요한 모든 청소도구를 담은 카메라와 렌즈 클리닝 키트

마그네틱 컨버전 어댑터링
MAGNETIC CONVERSION ADAPTER RING

일반 원형 필터를 마그네틱 필터로 변환하는 어댑터링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필터를 마그네틱으로 활용해 보세요

결로방지 렌즈히터
LENS HEATER

렌즈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추운 곳에서도 결로를 막고 카메라가 없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

렌즈용 극세사 매직 랩
CAMERA & LENS CLEANING KIT

렌즈, 카메라를 보호하는 극세사 랩 벨크로처럼 접착 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www.photoclam.kr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0번길 45 3바 727 2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65-9111

PHOTOCLAM

SUNWAYFOTO

포토클램이 수입하는 믿을 수 있는 촬영장비

SUNWAYFOTO
GH-RPO+

파노라마 · 랜드스케이프 · 정물사진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기어헤드

썬웨이 포토의 GH-PRO+는 정밀한 구도설정이 가능한 3-WAY 기어헤드입니다. 플레이트 클램프 부분에 파노라마 베이스가 추가되어 여러장의 사진을 합치는 촬영에서 수평을 맞추기에 용이합니다. 고급 황동 소재를 사용해 기어의 작동이 부드럽고 정교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www.photoclam.kr
본 사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0번길 45 3바 727 2층 / 031-488-9111
서울전시장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4 영한빌딩 별관 1층 / 02-2265-9111

PHOTOCLAM

BENRO
BENRO PREMIUM MAGNETIC FILTER
마그네틱 필터의 탑클라스
벤로 자석필터 시리즈
2x MAGNETIC POWER
NANO WMC
HD OPTICAL TECH
UV/ IR CUT
ULTRA SLIM FRAME
타사대비 2배이상 자력
발유,발수 오염방지 코팅
최상등급 광학기술
자외선 ,적외선 완벽 차단
울트라 슬림 필터 프레임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 문의 02-775-6681

Lexar 30TH
렉사 30주년
챔피언이 선택한 메모리 브랜드
렉사 공식수입원 (주)벤로코리아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글로벌 파트너
구입 및 대리점 문의 (주)벤로코리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빌딩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02-775-6681

BENRO

CYAN BIRD [MAX]

사진용 여행용 삼각대 **벤로 사이언버드 맥스**

휴대성과 안정적인 20kg 페이로드

BALL + Low Profile — 볼 + 역방향 로우 프로파일

CARBONE LEG — 강도, 진동흡수 카본재질 레그

47.3cm FOLD — 접었을 때 높이 47.3cm

156cm HIGH — 최대높이 156cm

20kg PAYLOAD — 페이로드 20kg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홍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문의 02-775-6681

www.phototour1.com

사진여행의 시작

포토투어가 작가 여러분의 특별한 사진여행을 안내합니다.
감동과 추억이 간직되는 여행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1월 – 중국 황산 촬영, 일본 비에이 촬영
– 일본 장노출 촬영(이세탄)

2월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로라 촬영
– 일본 비에이 유빙 & 단정학 촬영

3월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일본 복사꽃 & 장노출 촬영

4월 – 스코틀랜드 & 네덜란드 촬영
– 체코 남모라비 봄 촬영

5월 – 호주 남부 장노출 촬영, 인도네시아 장노출 촬영(룸복외)

6월 – 이탈리아 돌로미티, 베트남 무캉차이 다락논 촬영

7월 – 아이슬란드 백야 촬영 여행
– 필리핀 불루라군 촬영

8월 – 뉴질랜드 장노출, 스코틀랜드 여름 촬영

9월 – 아이슬란드 가을, 일본 가을 단풍 촬영 여행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촬영(1차)

10월 – 베트남 무캉차이 가을 촬영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2차), 슬로베니아 가을 촬영 여행

11월 – 일본 비에이 촬영, 인도네시아 슴바섬 촬영

12월 – 베트남 장노출, 일본 비에이 촬영

PHOTOTOUR

www.phototour1.com 031-272-2210 | 010-5265-3119 에스앤포(주)포토투어

제44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보정, 출력, 접수, 액자제작까지

– 회원전, 축전, 작품전 대행

Artluxe

아트룩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류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실내, 실외 자외선/가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 패널 시스템입니다.

ArtPlus

아트플러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류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한지, 페브릭, 파인아트, 캔버스는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작품을
재현하는 펴력적인 원목프레임으로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GOLD 골드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 •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출력 전시계획- 한지·페브릭·캔버스출력

PNP 아트룩스™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스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빈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RYSTAL ART 크리스탈아트

마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SURFACE 서피스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PEBRICK 페브릭

오래일같은 친근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아트룩스 유사상호, 출력필름 합성지, 중국산 필름 사용 등
불량제품 피해 주의바람.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국내유일 국산 아트페블릭인화지 원목입체액자

국내유일(독점) 국산 아트페블릭 인화지 사용, 인화품질 결과물 타업체와 비교 후 선택하세요.

생생한 느낌!
살아있는 질감!
놀라운 입체감!

자세한 사양 보러가기

프리미엄 아트페블릭 아트랩 원목입체액자(우드, 화이트, 블랙) 국내산 아트페블릭 인화지만 사용합니다.

장섬유인 닥나무 운용을 그대로! 소프트한 설경한지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닥운용 설경한지

한지인화 두진만의 프로파일 적용 미세한 디테일 까지...

설경한지랩 입체액자

닥운용 설경한지 한지랩 원목입체액자(우드, 화이트, 블랙)
국내산 전주 설경한지만을 사용합니다.

설경한지 한지랩

사진촉전 바로가기 | 한지액자 바로가기 | 두진액자 바로가기 | 두진아트 바로가기

www.dujinart.com
전화상담. (031)314-1085

두진아트 TEL. 031-314-1085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국내유일 국산 아트페블릭 인화지 사용, 인화품질 결과물 타업체와 비교 후 선택하세요.

PS: 중국산 저가 아트페블릭 인화지 국내 "유통경보" 인화지의 질이 다르다 (중국산과는 인화품질 비교불가)

업체에 인화작업전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확인 및 검증 후 작업하세요?

100년의 보존가치. 엄선된 품질관리 두진에서 만나보세요.

띄움&올림 액자 뒷면

띄움&올림 액자

(화이트,우드,월럿,블랙)

캔버스 액자 뒷면

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아트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디아섹 뒷면

독일제무반사 디아섹

고광택 디아섹

지부행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월럿,블랙) . 사이즈 (3R, 4R,5R, 6R, 8R,11R)

액자보러가기

arttre

공모전 부문 작품 제작

아직 주문 전이신가요?

편리하게 아뜨레에서 주문해보세요!

관리이사 정덕원 | **M** 010-3467-3513 www.arttre.co.kr

아뜨레

제 44 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접수대행

정성들여 찍은 작품, **접수까지 완벽하게!**

전화 한번으로 간편하게
촬영에만 집중하세요

전화 문의 > 웹하드 접수 > 접수 완료

웹하드 ID garttre | PW 1544

이덕만의 특수촬영 전문과정 모집

(2026년 4월 7일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강좌개요

1. 많은 사람들이 풍경사진을 이름난 포인트에서의 촬영하기에 필연적으로 비슷한 결과물을 얻게된다.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차별화된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선 특수촬영을 통해 나만의 기법으로 이미지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2. 색다른 촬영을 원하는 작가들을 위한 특수촬영을 주제로 이론, 촬영실습, 편집실습을 병행으로 진행된다. 과정에서 저속촬영, 틸팅, 다중촬영, 카메라 저속 HDR, 사계의 은하수 촬영, 특수한 빛 갈림 촬영 등의 다양한 촬영기법을 강의한다.

강좌대상

일반사진애호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 및 회원

모집인원 및 강의시간(2026년 상반기)

1. 모집인원 : 50명 이내 (※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2. 강의장소 :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협회 강의실
   (zoom 온라인 강의 병행)
3. 강의기간 : 26년 4월 7일(화) 개강 ~ 7월 7일(화) 종강
   (어린이날 및 선거전일 휴강)
4. 강의시간 : 1주/4시간(13:00 ~ 16:50) 총 12주 과정
   48시간 이수

수강료

1. 강좌 수강비 : 40만원
2.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3. 입금기한 : 2026년 4월 7일(화) 정오(수업 전) 까지
   (카드납부 가능, 계좌이체 가능, 영수증 발급 가능)

강좌 수강 혜택

1.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에게는 협회 입회 시 7점의 입회점수 부여
2. 협회 회원인 경우 200점 공모전 심사자격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수료증을 통해 점수 인정
3. 자체 제작 교재 제공
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명의 수료증 발급
5. 협회와 관련된 사진 기자재 업체의 제품구매 시 할인 적용

수강생 준비물

: 카메라 및 렌즈, 삼각대, ND필터 외(별도안내), laptop(노트북)
또는 PC(데스크탑) 최소 필요사양, 포토샵 프로그램 설치, 필기도구 외

김용열의 PHOTOSHOP 전문과정 모집

(2026년 4월 8일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강좌개요

본 과정은 Adobe PHOTOSHOP 을 이용한 디지털사진의 다양한 편집과 수정 기술을 다루는 강좌이다. 총 12주(36시간) 과정으로 1주당 3시간 수요일 대면 및 비대면 줌강의를 통한 강좌를 진행하며, 이론과 실습으로 병행 진행된다. 또한 본 전문과정은 엑셀, 워드, 한글 등 기본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본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촬영한 디지털사진 및 아날로그사진의 스캔 및 다양한 디지털 화상이미지를 이용한 편집, 수정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좌대상

일반사진애호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 및 회원

모집인원 및 강의시간(2026년 상반기)

1. 모집인원 : 50명 이내 (※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2. 강의장소 :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협회 강의실
   (zoom 온라인 강의 병행)
3. 강의기간 : 2026년 4월 8일(수) 개강 ~ 2026년 7월 8일(수) 종강
4. 강의시간 : 1주/4시간(13:00 ~ 16:50) 총 12주 과정 48시간 이수
   (수업 후 약 1시간의 보강수업을 진행 할 수 있음.
   단 수업일 변경시 안내 예정)

수강료

1. 강좌 수강비 : 40만원
2.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72899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3. 입금기한 : 2026년 4월 8일(수) 정오(수업 전) 까지
   (카드납부 가능, 계좌이체 가능, 영수증 발급 가능)

강좌 수강 혜택

1.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에게는 협회 입회 시 7점의 입회점수 부여
2. 협회 회원인 경우 200점 공모전 심사자격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수료증을 통해 점수 인정
3. 자체 제작 교재 제공
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명의 수료증 발급
5. 협회와 관련된 사진 기자재 업체의 제품구매 시 할인 적용

수강생 준비물 : laptop(노트북) 또는 PC(데스크탑) 최소 필요사양
PHOTOSHOP 프로그램 설치(개강시 설명 진행),
필기도구 외

출판광고

대한민국 전국 풍경사진 지침 교재
– 전국 180곳 촬영 스팟

풍경에 길을 묻다

"풍경에 길을 묻다" 저자인 배복형 작가는 3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대한민국 방방곡곡 전국 풍경 사진 스팟을 직접 유랑하며 기록한 찰나의 흔적들 중 선별하여 180 곳을 모은 교재형 작품집입니다.

특히 이 교재의 특징은 180곳 풍경 사진작품만이 아닌 저자가 직접 방문 촬영하였던 촬영지 주소 및 정보 소개 및 촬영지 특징들을 나열, 촬영 스팟 모든 정보를 오픈하였습니다.

나만의 인생 풍경 작품 촬영지를 아직 찾지 못하셨던 분,
풍경사진 강의 중 촬영 장소를 추천하기 고민 되시는 분,
오랜 시간 사진 강의 교재를 만들고 싶었던 분,
"풍경에 길을 묻다" 배복형 작가의 책은 고민만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교재입니다.

풍경에 길을 묻다 | 裵福炯 寫眞選集
Asking the Way to the Landscape

지은이 Author 배 복 형
도판 사이즈 Size 210mm(가로) x 280(세로)mm
전체 페이지 Page 204 Page
E-mail bbhemail@hanmail.net
발행처 Publisher CL컨설팅
판매가 Price 80,000만원

사진작품집 교재 구매 및 문의
저자 배복형 010-5491-4081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가미미해수욕장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남당리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학원농장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할미섬

풍경에 길을 묻다

카메라를 처음 손에 쥐던 날을 기억합니다.
설레면서도 막막했고, 아름다운 장면 앞에서 셔터를 누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그 순간들...
돌아보면 그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풍경은 늘 말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빛이 드리운 산등성이,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물안개 속에 가려진 들판…
그 모든 풍경은 우리의 시선과 감정을 기다리는 조용한 대화 상대입니다.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대왕암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두물머리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상촌정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목행 물안개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운여해변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황우치

하지만 자연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나무가 어느새 부쩍 자라 있거나 꺾여있고,
쓰러져 있던 등대가 꽃꽃 하게 서 있는가 하면, 무자비한 개발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 풍광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 책은 그 풍경에 길을 물어, 망설이지 않고 카메라를 메고 내가 담고 싶은 자연을 마음 것 담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위해 쓰였습니다.
여기 실린 글과 사진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봄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참고 작품은 참고 작품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접하시는 사진가들에게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따뜻하게,
카메라와의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느낌을 담아내는 실전 촬영,
그리고 찰나의 감정을 놓치지 않는 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진은 누군가를 따라 찍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 세계를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예술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그 길 위에서 조용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머문 곳에 카메라를 들어 밀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풍경에 말을 걸어보세요.
사진은 그 대답을 기록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배복형_풍경에 길을 묻다_문광 저수지

2 저자

3 저자

4 저자

5 저자

6 저자

7 저자

나만의 교재,
작품집
나도 가능합니다.

문의. 노성진(월간 한국사진 편집장)
010-3387-0244

OCEAN KOREA
AURA(아우라)

전시일시 2026년 4월 1일(수) ~ 4월 6일(월)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5-6)
관람시간 10:30 ~ 18:30
전시작가 AURA(아우라, 010-5510-1570)
아우라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aurapoto
아우라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eaaura/

나의 나침반은 언제나 바다를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사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기다림의 미학'이라 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가장 완벽한 대답을 내어주는 대상은 언제나 바다였다. 〈OCEAN KOREA〉는 뷰파인더라는 작은 사각의 프레임을 통해 내가 마주했던 수만 번의 파도, 그리고 그 거대한 푸른빛의 세계에 바치는 나의 긴 연서(戀書)이자, 바다에 푹 빠져 지낸 한 사진가의 수행 기록이다.

바다는 단 한 순간도 같은 얼굴을 하지 않는다. 동해의 검푸른 새벽 바다는 엄격한 스승처럼 나를 꾸짖었고, 서해의 갯벌 위로 내려앉는 황금빛 노을은 지친 어깨를 감싸주는 어머니의 품 같았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의 바다가 토해내는 거친 숨소리, 안개가 자욱한 날 수평선과 하늘의 경계가 지워진 몽환적인 침묵, 그리고 한낮의 태양 아래 보석처럼 부서지는 윤슬의 찬란함까지. 나는 그 무수한 표정들 앞에서 셔터를 누르기보다 먼저 숨을 죽여야 했다.

사진가는 빛을 좇는 사람이라지만, 바다 사진가는 어둠과 바람과 추위를 먼저 견디는 사람이어야 했다. 원하는 한 컷을 얻기 위해 칼바람이 부는 겨울 바다 한가운데서 몇 시간을 서성였고, 파도가 들이치는 갯바위 위에

©아우라_2024 강릉(Gangwon Gangreung) 200cm x 105cm

ⓒ아우라_2021년 제주 추자(Jeju Chuja) 100cm x 77cm

ⓒ아우라_2025년 전북 고창(Jeonbuk Gochang) 100cm x 77cm

ⓒ아우라_2025년 충남서산(Chungnam Seosan) 130cm x 73cm

ⓒ아우라_2024년 인천 강화(Incheon Ganghwa) 100cm x 70cm

서 삼각대를 붙잡고 밤을 지새웠다. 발은 늘 젖어 있었고, 장비에는 소금기가 마를 날이 없었다. 하지만 뷰파인더 속으로 밀려드는 파도의 리듬에 내 호흡을 맞추는 순간, 추위도 고단함도 잊혀졌다. 오직 나와 바다, 그리고 무아(無我)의 시간. 그 몰입의 경험은 마치 중독과도 같아서, 나는 뭍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다시 바다 냄새를 그리워하며 짐을 꾸려야 했다.

〈OCEAN KOREA〉에서 나는 바다의 '형상'과 '시간'을 담고자 했다. 장노출(Long Exposure) 기법을 통해 거칠게 요동치는 파도를 잠재우고, 그 흐름을 안개처럼 부드럽게, 혹은 비단처럼 매끄럽게 표현한 작업들이 주를 이룬다. 1/1000초의 찰나가 파도의 '힘'을 보여준다면, 2분, 10분, 30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셔터를 열어두고 담아낸 바다는 파도의 '영혼'을 보여준다. 시간의 궤적이 중첩된 사진 속 바다는 현실의 풍경이면서 동시에 비현실적인 추상의 세계다. 그것은 격정적인 감정이 가라앉은 후 찾아오는 평온함이며,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이 소거된 절대 고독의 공간이다. 나는 관람객들이 나의 사진 앞에서 잠시나마 세상의 속도를 잊고, 이 고요한 심연 속을 유영하기를 바란다.

전시작들을 고르며 지난 20년의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았을 때, 나는 사진 속에 담긴 것이 바다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곳에는 나의 열정이 있었고, 고뇌와 성숙이 있었으며, 숱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희망이 파도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바다는 나의 캔버스였고, 나의 일기장이었으며, 때로는 나의 유일한 청자(聽者)였다.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바다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끊임없이 밀려오고 다시 물러가는 파도의 반복을 통해 '모든 것은 지나가며, 또한 다시 시작된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초기의 사진들이 바다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쫓았다면, 최근의 작업들은 덜어냄과 비움의 미학을 지향한다. 수평선 하나, 바위 하나, 그리고 여백. 채우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바다가 주는 여백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진은 더 깊은 울림을 갖게 됨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여기 걸린 사진들은 내가 훔쳐온 바다의 조각들이다. 〈OCEAN KOREA〉는 마침표가 아니라,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쉼표다. 바다는 여전히 나에게 미지의 영역이며, 탐구해야 할 우주다. 나는 앞으로도 카메라를 메고 그 푸른 경계선 위에 서 있을 것이다. 파도가 멈추지 않는 한, 나의 셔터 소리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우라_2025년 충남태안(Chungnam Taean) 90cm x 90cm

수천만번 갯바위를 때리는 파도는 장노출 기법으로 포근한 솜사탕처럼 녹아들고
비현실적인 추상의 세계를 드러낸다. 숱한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창작 동력을
나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바다로부터 얻었다.

[임효례 개인전] 곁에 있어 고마운 너

교감의 언어, 문화의 무늬: With You

임 효 례(군포)

전시일시 2026년 3월 9일(월) ~ 3월 20일(금)
전시오프닝 2026년 3월 12일(목) 3시
전시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국회 Art Gallery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층 2문)
전시안내 홈페이지: https://culture.assembly.go.kr:450/culture/exhibition/exhibition_a.do
국회 홈페이지 → 국회문화행사 → 국회 Art Gallery ⓒ국회 홈페이지
전시작가 임효례(010-9041-0088)

ⓒ임효례_진심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 자리에-대한민국(Korea)/진돗개, 동경개(Jindo, Donggyeong Dog)

ⓒ임효례_고요한 사막의 바람처럼, 우아함 속에 깊은 강인함을 품고
-이란(Iran)/살루키(Saluki)

ⓒ임효례_청명한 숲의 바람처럼, 맑은 눈빛에 담긴 솔직한 마음으로
-핀란드(Finland)/핀리시스피츠(Finrish Spitz)

ⓒ임효례_햇살처럼 스며든 너의 웃음, 그 순간 모든게 따스해졌다.
-아이슬란드(Iceland)/아이슬란드 쉽독(Icelandic Sheepdog)

ⓒ임효례_작은 발걸음마다 추억이 피어난다.
-스웨덴(Sweden)/스웨디스 발훈드(Swedish Vallund)

ⓒ임효례_유수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이만례 부부

“곁에 있어 고마운 너와 나의 이야기: 33cm의 기적”

사진가로서 30년, 저는 렌즈를 통해 수많은 물리적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사라져가는 마을 ‘둔대리’를 8년간 기록하며 소멸해가는 것들의 흔적을 붙잡았던 시간은 저에게 사진가의 윤리적 책무를 일깨워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Dogs of the World》와 《With You》프로젝트는 저에게 단순한 기록 이상의 ‘구원’에 관한 탐구였습니다.

“AI의 첫 붓질은 빛이었다.”

이번 전시에서 저는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인간의 깊은 갈망을 투영하여 형상화하는 정교한 예술적 파트너로 정의했습니다. AI가 빚어낸 이 빛의 초상들은 우리가 반려견이라는 존재에게 투영해 온 기억과 꿈의 잔상들입니다. 흙의 냄새가 사라진 디지털 시대에도 생명의 발자국이 영원한 서사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기술이 그 기억의 파편들을 ‘빛의 숨결’로 다시 피워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으로 빚어진 완벽한 형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온기’입니다. 저는 차가운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디지털 영혼 위에, 작가인 제가 직접 채록한 견주들의 뜨거운 육성을 얹었습니다. 기술이 형태를 만들고 인간의 감정이 온기를 불어넣는 이 과정은, 디지털 시대에도 결코 변치 않는 생명의 존엄성을 역설합니다.

제가 군포의 이웃들을 인터뷰하며 목격한 것은 ‘33cm의 기적’이었습니다. 반려견과 인간 사이의 가장 친밀한 거리인 33cm는, 단순히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재구성되는 구원의 공간입니다.

〈보듬음으로 완성되는 평온: 국회부의장 이학영, 박홍인 내외〉가 품에 안은 ‘쪼쪼’는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를 보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삶의 평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빚은 신뢰와 사랑: 유수찬 이사장, 이만례 여사〉와 함께한 다롱이와 보리는 생명의 숭고한 가치를 투영합니다. 헌혈견이자 순찰견으로 활동하는 대형견 ‘보리’와 함께한 시간은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리더의 책임감 있는 미소로 담아냈으며, 꼬리와 귀를 염색한 모습이 사랑스

ⓒ임효례_김남재 김진영 부부

순수한 감정으로 교감하는 존재, 우리 삶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들이 AI의 조력으로 빛을 발합니다.

ⓒ임효례_이학영(제22대 국회부의장) 박홍인 부부

러웠던 ‘다롱이’가 목을 다쳐 불편한 몸임에도 아빠의 발소리에 힘겹게 달려오던 그 뜨거운 온기는 이번 AI 작품을 통해 불멸의 ‘디지털 영혼’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17년을 동행하며 안락사의 위기를 이겨낸 ‘기쁨’이, 군 복무 시절 외로움을 녹여준 ‘간지’, 그리고 무뚝뚝했던 남편을 매일 만보기를 차고 걷게 만든 ‘무민’의 사연은 반려견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삶의 인프라’임을 증명합니다.

“행복이란, 네가 곁에 있다는 단순한 진실”

전시장을 나설 때, 여러분은 사진 속 서른세 마리의 눈빛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기술의 빛(AI)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작고 따뜻한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With You—곁에 있어 고마운 너〉라는 고백처럼, 기술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인간적인 온기를 가슴에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곁에 있어 주어 고마운 그 이름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서로의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성록 사진전] 경계의 기록

필름 너머 디지털 시대, 성수동을 담다

이 성 록(광진구)

ⓒ이성록_경계의 기록

ⓒ이성록_경계의 기록

끝나지 않은 화두, 무엇을 찍을 것인가

사진이라는 매체에 매료되어 카메라를 손에 든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무엇을 찍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나의 사진적 여정을 이끄는 영원한 화두이다. 초기에는 로버트 카파의 처절한 현장성과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완벽한 구도에 매료되어 그들의 발자취를 좇았다.

마에다 신조의 서정적인 풍경 속에서 위안을 찾기도 하며, 거장들의 사진집을 탐독하고 그들의 시선을 흉내 내려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마음에 드는 단 한 장의 사진을 얻기란 쉽지 않았다. 타인의 시선은 잠시의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나만의 언어는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만의 시선을 찾다

흑백 필름을 현상하며 암실에서 보낸 시간은 이제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밀려났다. 오늘날 전시장 가득 걸린 완벽하게 조합된 색과 구성의 사진들을 볼 때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나 또한 저런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자 시도했지만, 내 가슴 깊숙한 곳에는 제이 마이젤의 빛에 대한 집착, 게리 위노그랜드의 날것 그대로의 거리, 그리고 포르쉐 피멘타의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스트리트 포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진을 잊을 수 없었고, 결국 '나만의 사진'을 하자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나는 필름 시대의 감각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도구로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또 배웠다.

ⓒ이성록_경계의 기록

ⓒ이성록_경계의 기록

ⓒ이성록_경계의 기록

ⓒ이성록_경계의 기록

성수, 비연출적 사실주의의 실험장

그리하여 나는 나만의 '현대적 사실주의'를 구현하기로 마음먹었다. 거창한 연출이나 인위적인 보정보다는, 현실이 내게 보여주는 날것 그대로의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서는 순간, 나의 정신과 눈은 맑아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비연출적인 사람들과 건축물, 그리고 풍경들이 나의 시야에 들어올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렌다.

서울의 역동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성수동에서의 기록이다. 낡은 공장과 세련된 카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독특한 공간은 나의 사진적 실험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나는 성수동을 배회하며 그곳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여기에 담긴 사진들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그것을 찾는 고민'의 과정이며, 나 자신이 설정한 길 위에서 나만의 시선을 찾아가는 치열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부디 이 사진들이 보는 이들에게 익숙한 풍경 속 숨겨진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낡은 공장 주변으로 세련된 카페거리가 묘하게 어우러진 성수동,
그 곳엔 빛과 그림자가 오버랩 된다.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이 지나간다.
그래서 그 곳은 나의 사진의 실험장이다.

ⓒ이성록_경계의 기록

밤과 낮의 교차점, 그 경계선에서 말없이...

오름, 머무는 시간 Oreum, A Moment of Stillness

이 성 길(제주)

어슴프레한 빛이 하늘과 땅의 구분선을 찾게 만드는 시간,
첫 태양 빛이 능선에 떨어지기 직전에 바람도 움직여 변화의 시간을 리드한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이 컬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성길_오름, 머무는 시간

ⓒ이성길_오름, 머무는 시간

오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같은 모습으로 머무는 시간은 단 한 순간도 없다. 낮과 밤, 계절과 바람, 구름과 빛의 흐름 속에서 오름은 매번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선다. 이 전시는 오름이 품고 있는 시간의 결을 따라, 머무름과 변화의 순간들을 기록한 작업이다.

'오름의 머무는 시간'은 빠르게 스쳐 가는 풍경이 아닌,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오름의 숨결을 담는다. 사람의 발길이 멎은 이른 새벽, 바람조차 고요해지는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오름은 가장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곳에는 말없는 침묵과 깊은 호흡이 있다.

ⓒ이성길_오름, 머무는 시간

'오름색 일출과 여명'은 밤과 낮이 교차하는 경계의 기록이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오름의 능선 위로 첫 빛이 스며들 때, 하늘과 땅은 잠시 같은 색을 띤다. 여명 속에서 오름은 그날의 공기와 계절을 품은 색으로 깨어난다.

ⓒ이성길_오름, 머무는 시간

ⓒ이성길_오름, 머무는 시간

ⓒ이성길_오름, 머무는 시간

'오름의 별과 여명'은 밤하늘 아래 고요히 잠든 오름의 시간이다. 수많은 별이 오름 위로 내려앉고, 별빛 아래 오름은 낮보다 더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여명이 시작되면 별은 사라지지만, 그 잔상은 오름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오름에 핀 철쭉과 운해'는 계절이 만들어내는 제주다운 순간이다. 붉은 철쭉이 능선을 따라 피어오르고 운해가 흐를 때, 오름은 마치 섬 위의 또 다른 섬이 된다. 기다림과 인내 끝에 주어지는 자연의 선물과도 같은 장면이다.

이 전시는 화려함보다 오름이 스스로 말을 걸어오는 시간을 담고자 했다. 사진 속 오름은 풍경이기 이전에 살아 있는 존재이며, 그 안에는 제주가 품어온 시간과 자연의 호흡이 담겨 있다. 잠시 머무는 시선 속에서, 오름과 마주한 각자의 시간이 조용히 이어지기를...

ⓒ이성길_오름, 머무는 시간

ⓒ이성길_오름, 머무는 시간

ⓒ김윤설_피츠로이 파노라마

ⓒ김윤설_피츠로이 은하수

바람이 불어오는 그 곳, 잊히지 않을 그 이름

파타고니아

김 윤 설(광주)

평생 마음속에 품어 온 이름이 있었다. 파타고니아. 젊은 어느 날 우연히 보았던 사진 한 장이 나를 일생 동안 이곳으로 이끌었다. 언젠가 꼭 가리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지만, 현실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체력, 시간, 비용. 어느 하나 가벼운 조건이 없었다. 그러다 35일이라는 긴 여정의 출사를 계획하면서 남편의 이해와 배려를 다시 한 번 구했고, 오랜 시간 걷기와 산행으로 몸과 마음을 다져왔다. 그러나 세계를 덮친 코로나는 나의 계획을 묶어두었다. 3년이라는 공백이 지나고, 마침내 세상이 다시 열리는 순간 나는 주저 없이 실행에 옮겼다.

고희를 앞두고 감히 다시 꺼내기 어려웠던 꿈. 그토록 바라던 파타고니아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토스카나를 지나 칠레 산티아고, 볼리비아 우유니, 프에르토 나탈레스를 거쳐 토레스 델 파이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엘찰텐까지. 길고도 긴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1. 토레스 델 파이네 – 황금빛 삼봉을 향한 밤의 행군

류지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짐도 풀지 못한 채 11시 30분에 다시 길을 나섰다. 새벽 1시 30분, 주차장에 도착하자 하늘에는 수없이 박힌 별들이 반짝였다. 그러나 그 아래의 길은 다른 세상이었다. 캄캄한 암흑 속 낭떠러지 같은 산길, 흐르는 빙하수의 소리가 적막을 깨고 울렸다. 잠 한숨 못 잔 몸은 금세 무거워졌고, 다리는 뻣뻣해지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즈음, 동행해준 선생님이 삼각대를 대신 들어주시며 다시 한 걸음을 떼게 했다. 밤새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미 일행 중 한 명은 낙오했다. 그래도 함께 오른 세 사람의 호흡은 어두운 산길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다.

정상 바로 아래에서 추위에 떨며 포기해야 할지 갈등하던 순간,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사람들의 실루엣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정상 앞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밧줄이 치여 있는 금지구역 아래를 기어오르자, 앞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다. 눈물이 왈칵 흘렀다. 곧이어 고구마봉 삼봉 위로 황금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이 장면을 보기 위해 나는 이 먼 길을, 밤새운 고비를 지나왔구나.

아침빛 속에서 빙하 호수는 잠시 황금빛으로 일렁이다 사라졌다. 그 순간은 사진보다 마음속에 더 선명했다. 정상에서 주먹밥 한 개를 나누어 먹고 장노출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하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이 오히려 더 길고 험했다. 밤중에 이 길을 올라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치 인생의 고비를 되짚어 내려오는 듯한 시간이 이어졌다.

2. 피츠로이 – 은하수와 맞닿은 새벽

피츠로이 정상에서 은하수 촬영을 위해 밤 12시에 출발했다. 왕복 20km, 마지막 2km는 급경사 자갈길이라는 말에 마음은 이미 긴장돼 있었다. 하지만 하늘에는 흐트러진 별빛이 가끔씩 비추며 길을 안내했다. 너덜지대와 바위길을 지나며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떨렸지만, 정상에서 보인 작은 불빛 하나가 그 모든 고통을 단숨에 지웠다. 드디어 피츠로이 정상 아래에 도착했다. 봉우리 옆으로 유려하게 흘러내린 은하수, 잔잔한 호수 위의 반사, 밤하늘을 꽉 채운 별들. 그 순간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이로움이었다.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피츠로이는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반영까지 더해져 숨을 삼킬 수밖에 없는 장면. 이 풍광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 다시금 타올랐다.

ⓒ김윤설_파타고니아, 바람이 남긴 흔적 #02

봉우리 너머 유유히 흐르는 은하수 별빛이 여명 속에서 빛나는가 싶더니
붉은 빛 하늘이 파노라마처럼 눈 앞에 펼쳐졌다.

ⓒ김윤설_파타고니아, 바람이 불어오는 그 곳

ⓒ김윤설_피츠로이 겨울

ⓒ김윤설_피츠로이

3. 작은 연못에서의 피날레

엘찰텐 마지막 날, 일출 반영을 찍기 위해 편도 8km 지점의 작은 연못으로 향했다. 구름이 낀 하늘에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에 결국 길을 나섰다. 중턱 바위에서 잠시 바람을 피해 쉬다가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

피츠로이의 정상과 연못이 동시에 불타오르는 듯했고, 단풍까지 물들어 풍경은 절정에 이르렀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촬영은 여정의 완벽한 결말이 되었다.

4. 피츠로이를 향한 바람의 길

날마다 바람이었다. 새벽녘, 온몸을 파고드는 찬 기운을 맞으며 나는 피츠로이 폭포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바람에 실려 언덕 아래로 내던져질 듯 흔들렸다. 밤하늘에는 총총한 별들이 가득했고, 은하수는 조용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하늘을 오래 올려다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리더는 속도를 맞추자며 앞서 걸었고, 나는 숨을 고르며 그 뒤를 따랐다. 처음 1km 구간은 숨 돌릴 틈 없는 오르막이었다. 이어지는 고지를 향해 걷는 동안, 뒤따라오는 트래커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성큼성큼 나아갔다. 그들의 경쾌한 보폭이 부럽기만 했다. 2km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길이 완만해지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렇게 피츠로이 전망대를 지나 폭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작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벽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로지 폭포의 웅장한 울림뿐이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 촬영 지점을 잡았지만, 몸을 파고드는 바람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세차게 밀려왔다. 옷을 겹겹이 껴입었음에도 온몸이 떨렸고, 찬 바람을 이겨내는 일은 작은 전투처럼 느껴졌다.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지만 피츠로이는 끝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막처럼 짙게 드리운 구름은 단단히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가을은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단풍은 며칠 사이 또 다른 색으로 갈아입으며 더욱 깊은 빛을 품어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자 우리는 아쉬움을 남긴 채 하산하기로 했다. "오지 않아 후회하는 것보다, 와서 후회하는 것이 낫다"는 신념으로 20%의 가능성에 기대어 떠난 길이었다. 비록 기상은 불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한 모든 순간은 한 장의 사진처럼 소중하게 마음에 남았다. 내려오는 길에는 쓰러진 고사목들이 길을 막아섰지만, 그 모습조차 황혼에 접어든 내 삶을 비추는 듯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 나에게는 마지막 도전이자 오래된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피츠로이여. 작고 보잘것 없는 나이지만, 여기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이 길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 내 발로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가 차올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오늘의 헛걸음조차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내일은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영원한 피츠로이여, 언젠가 너는 반드시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겠지

5. 바람의 땅이 남긴 질문

파타고니아는 '지구의 끝'이라 불리는 땅이다. 바람이 창을 때리던 긴 밤들,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왜 이토록 험한 길을 선택해 오르려 했을까. 왜 편안한 길 대신 위험과 고통을 감내해가며 여기까지 왔을까.

아마도 바람이, 그리고 광활한 자연이 나에게 오래전부터 말을 걸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바람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돌아보고, 잊고 지냈던 용기와 감정을 다시 발견했다. 이 여정을 함께해준 동행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과 함께였기에,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나 자신의 또 다른 원점을 찾을 수 있었다.

파타고니아. 살아서도, 죽어서도 쉽게 갈 수 없는 그곳. 그러나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잊히지 않을 이름.

ⓒ장일미_그해의 바다

그 해 그 바다, 동백은 지지 않았다

제주 4·3의 붉은 생명

장 일 미(평택)

ⓒ장일미_그해의 바다

제주의 바다는 언제나 부드럽게 흔들리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잠들어 있다. 이 연작은 장노출 기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녹여낸 사진 작업으로 제주의 역사 속 한 페이지인 제주 4·3사건의 기억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나는 카메라의 셔터를 길게 열어 두었다. 바람과 파도가 한 몸이 되어 흐르고 검은 현무암은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속의 바다는 현실의 형태를 잃고 마치 망각과 기억의 경계에 선 듯한 흐릿한 풍경이 된다. 이는 곧,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제주의 상처이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기억을 의미한다.

동백꽃은 제주의 4·3을 상징하는 붉은 생명이다. 겨울에도 피어나는 동백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는 저항과 생존의 꽃이다. 나는 그 꽃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증언의 언어'로 사용했다. 흑갈색의 바다 풍경 속에서

ⓒ장일미_그해의 바다

ⓒ장일미_그해의 바다

ⓒ장일미_그해의 바다

유일하게 색을 지닌 동백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를 알리는 영혼들의 숨결이다. 세피아로 조정된 색조는 과거의 흔적을 불러오고 그 위에 피어 난 동백꽃은 그 기억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차가운 화면 속 붉은 꽃은 희생과 생존, 상처와 회복을 동시에 상징한다.

'그해의 바다, 동백은 지지 않는다'는 망각의 물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제주 사람들의 기억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 작업은 단지 과거를 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기억의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시도이다. 이 사진들을 통해 바다가 증언하고 동백이 말하고 관객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장일미_그해의 바다

모진 겨울 바람 속에서 붉게 피어나는 강한 생명,
꺾이지 않는 생명의 의지가 푸른 파도 부서지는 바윗돌보다 굳세다.

ⓒ장일미_그해의 바다

ⓒ장일미_그해의 바다

멈춘 시간 위에 다시 피어나는 삶

ⓒ구미숙_오래된 계단에 손끝을 스치며 #01

ⓒ구미숙_오래된 계단에 손끝을 스치며 #02

오래된 계단에 손끝을 스치며

구 미 숙(양천구)

비좁은 골목길을 따라 나 있는 오래된 계단에는 세월의 그림자가 켜켜이 내려앉아 있다. 누군가의 발자국이 지나간 자리마다 기억이 머물러 있고, 바람은 그 기억을 스치며 사람 사는 냄새를 퍼뜨린다. 초라해 보이지만, 이 골목은 분명 누군가의 삶을 품고 있는 따스한 품이다.

덩그런 계단을 넘으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찬 바람이 감싸 안는다. 벽돌 틈새마다, 시멘트 위에 피어난 작은 풀잎 하나에도 사람들의 숨결이 배어 있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도시의 화려함 너머, 잊힌 듯 한 이 작은 골목에는 오히려 삶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 숨어있다.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의 틈새는 희망의 실처럼 가늘지만, 내 마음에 스며들고, 오래 된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와 마주친다. 누군가의 삶이 쌓여 만들어진 이 길은 결국 내 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낡은 벽돌의 울기, 덩그러한 그림자, 골목을 타고 흐르는 공기의 향기 속에서 나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천천히 발견한다. 이 골목은 풍경이 아닌 삶, 살아있음, 그리고 그 삶을 조용히 위로하는 공간이다.

"여기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그들의 하루는 소박했지만 단단했다. 부엌 창가에 걸린 낡은 수건 한 장, 낮은 담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비 오는 날 골목을 타고 흐르던 빗물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이곳의 시간과 함께 살아 숨 쉰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마음이 고요해진다. 오래된 돌담에 손끝을 스치면, 그 거칠고 따뜻한 감촉 속에서 사람의 체온이 느껴진다. 잊힌 듯 남겨진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이곳의 시간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
어느새 나는 골목의 한 켠에 앉아 숨을 고른다.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벽에 비치면, 그림자 속에서도 생의 온기가 느껴진다.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시간은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흔적은 결국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골목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삶이 지나간 흔적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품고 있는 작은 우주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길 위에 서서 속삭인다.

"모든 발자국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미숙_오래된 계단에 손끝을 스치며 #03

낡은 돌계단에 머문 삶

연 도 흠(화성)

오래된 골목길에는 시간의 그림자가 머물러 있습니다. 비에 젖은 돌계단은 수많은 발자국을 품고, 그 위로는 세월의 숨결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젖은 흙냄새 속에서 오래전의 사람들은 삶의 무게를 지고 이 길을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허름한 담장과 낡은 기왓장은 그들의 숨소리를 기억하고, 세월에 닳은 돌계단은 발끝으로 전해진 희로애락을 품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여전히 오래된 웃음소리와, 끝내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묵묵히 잠들어 있습니다.

ⓒ연도흠_낡은 돌계단에 머문 삶 #01

ⓒ연도흠_낡은 돌계단에 머문 삶 #02

이곳은 한때 고단한 나날을 살아낸 사람들의 터전이자, 내일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뜨거운 삶의 자리였습니다. 비좁은 골목과 닳은 계단은 그들의 하루를 지탱한 어깨였고, 어둠 속에서도 서로에게 등을 내어주며 살아가던 따스한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발자취는 사라진 듯하지만, 여전히 돌의 틈새마다 온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희망이 오늘의 숨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삶은 어쩌면 돌계단을 오르는 일과 닮았습니다. 때로는 무겁고 미끄럽지만, 그 끝에는 언젠가 마주할 작은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노을에 물든 하늘빛, 그리고 바람에 실려 오는 오래된 이웃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은 서로를 기억하며 내일로 향하는 길이 되어 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어제의 상처를 딛고 오늘의 삶을 걸어가며, 언젠가 다시 피어날 희망의 숨결을 믿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 너머로 피어난 이름 모를 꽃처럼, 이 골목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과 고단함의 그림자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의지,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꿈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사라져가는 공간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삶의 애환과 희망의 서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록입니다.

돌계단의 한 칸 한 칸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남긴 기도이자, 세월의 무게를 품은 노래입니다. 나는 그 위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여전히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연도흠_낡은 돌계단에 머문 삶 #03

잊힌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다

류 중 열(증평)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오다 보면, 오래된 벽돌 담장과 부서진 담벼락 사이로 지난 시간들이 조용히 숨 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달동네의 골목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층층이 쌓인 기억의 흔적이다. 계단마다, 담장 틈마다 스며든 삶의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한때는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리던 좁은 골목은,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고단했지만 서로에게 기대던 삶의 터전이었다.

하늘을 바라보면 달빛 아래 웃음이 피어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밥 짓는 연기가 섞여 마을을 감쌌다. 천막촌이라 불리던 이 작은 공동체는 누추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다. 그곳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이 사진에 담긴 골목과 담장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다. 누군가의 어린 시절이 흐르고, 사랑이 움텄으며,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던 무대다. 허물어진 벽돌 틈 사이에 자란 풀이 마치 그 시절의 삶을 기억하는 듯 고개를 내밀고 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우는 듯 보이지만, 기억은 이 골목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마치 한 장의 흑백사진처럼, 잊히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이번 작업은 과거를 단순히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골목의 시간을 붙잡고, 잊혀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세상 밖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속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땀과

ⓒ류중열_잊힌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다 #01

ⓒ류중열_잊힌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다 #02

ⓒ류중열_잊힌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다 #03

눈물로 하루를 버텨내며, 희망이라는 작은 빛을 품고 살던 사람들이...

허물어진 벽과 담장을 찍으며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지친 어깨를 토닥이던 손길, 달빛 아래 나지막이 들리던 노랫소리.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곳에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행복했다"고...
오늘, 다시 이 골목을 바라보며 나는 질문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시간일 것이다. 이 사진에 담긴 풍경은 비록 낡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부유함보다 값진 '삶'이 담겨 있다.

이 작업이, 오래된 골목과 천막촌의 시간을 기억하는 작은 기록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잊힌 과거의 조각을 다시 불러오는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란다.

사진의 본질, 어떻게 달라졌나?

이미지 시대의 캐논과 사진가의 역할 Ⅱ

글, 사진제공_배택수(본협회 상임이사, 사진평론가)

19세기: 복제의 정확성

20세기: 복제가 아닌 해석·형식

21세기: 지표성이 아니고 신뢰의 조건·해석 맥락
(AI 생성 이미지)

사진의 본질은 시대와 기술 변화 속에서 다시 쓰여야 한다.

사진 이론에서 **'본질'**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의 형태로, 본질은 어떤 물건 속에 영원히 들어 있는 단단한 핵이 아니라, 그 시대가 사진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반영한다.

19세기에는 **'사진이 정말 현실을 복제하는가?'**가 핵심이었고, 20세기에는 **'사진은 예술인가 기록인가?'**가 쟁점이었으며, 21세기 특히 생성형 AI 이후에는 **'사진과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무엇이 다른가?, 현실과 연결된 흔적이 없어도, 사람들은 왜 그것을 '사진'처럼 받아들이는가?, 진실성은 이미지 안에 있는가?, 이미지 밖에 있는가?** 로 질문이 바뀐다.

이 질문들이 등장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지표성만으로 사진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에 도달한다.

사진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본질을 재정의하는 작업은 단지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 이미지 시대의 미학·윤리·사회적 신뢰 구조를 다시 세우는 기초 공사다.

1 왜 '사진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가?

19세기 이후, 사진의 본질은 줄곧 **'현실의 빛이 남긴 흔적'**, 즉 **'지표성(indexicality)'**에 의해 설명되었다.

빛이 감광판에 남긴 흔적 : 필름 네거티브 → 현상 → 프린트 과정

(AI 생성 이미지)

딥페이크 탐지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

Roland Barthes가 말한 **'그것은 거기 있었다'**는 문장이 사진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대표해 온 것도 이 때문으로, 사진은 단순히 어떤 장면을 닮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흔적을 붙잡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이미지 시대, 특히 딥페이크, 생성형 AI, 무한 편집·조작 기술은 이 믿음을 구조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진의 본질은 여전히 지표성인가?, AI 이미지도 사진과 같은가?, 사진의 현실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본질은 무엇을 기준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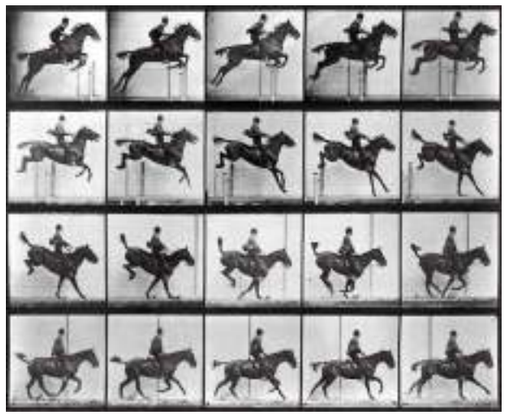
따라서 사진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일은 이미지 시대의 미학·윤리·철학을 다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2 전통적 사진론이 정의한 본질

사진론은 **지표성(빛의 흔적), 박제된 시간(정지된 순간), 사실성(사실 기록), 재현성(세상을 시각적 복제)** 등 본질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해 왔다.

지표성(빛의 흔적)

사실성(거짓말할 수 없는 기록)



박제된 시간(정지된 순간)

재현성(세상을 시각적 복제)

이 네 축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성이 강화되고, 정지된 순간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며, 재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된다. 즉, 전통 사진론의 본질은 **'현실과 연결된 흔적'**을 중심으로 구축된 하나의 묶음이다.

3 이미지 시대 : 네 가지 본질이 흔들림

위 네 가지 본질은 AI·데이터 기반 이미지 기술 앞에서 변화되었는데, AI 이미지는 **'카메라 없이 생성되고, 현실과의 물리적 접촉이 없어서 그것은 거기 없었다'** 는 이미지가 증가되어 지표성 붕괴(카메라 없이 만든 사진같은 이미지)되고, AI는 **'찍힌 순간'** 자체가 없고, 단지 **'계산된 순간'**이 있을 뿐으로, 시간의 박제 개념이 약화되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널리 퍼져서 **'사실성의 위계'**가 무너져 사실성 해체되고, 이미지는 더 이상 **'세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돼서 회화·사진·AI의 경계가 융합되어 재현성이 확장되었다.

4 새로운 본질 : 사진은 '관계적 행위(Act)'

전통적 본질이 무너진 지금, 사진의 본질은 **'대상이 있었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다'**로 이동하는데, 사진은 **'세상과 나'**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는 행위로, 여기서 **'관계'**는 물리적 접촉(지표성), 감정적 관여(정동성), 문화적·정치적 맥락, 기술적 조건, 해석의 층위, 주체의 개입등이 포함되어, 관계의 총합이 이미지로 응결된 구조이다.

이 정의는 전통적 사진과 AI 이미지 모두를 설명할 수 있지만, 두 영역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공한다.

물리적 접촉(지표성)

감정적 관여(정동성)

문화적·정치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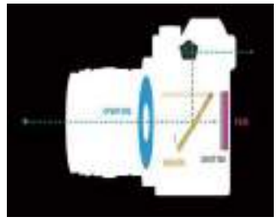
기술적 조건(카메라, AI는 기술이 관계의 문법을 만듦)

해석의 층위(관객의 해석이 사진의 본질에 참여)

5 사진의 본질은 '네 층위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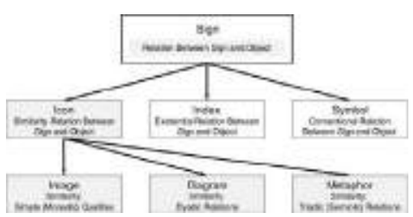
사진의 본질은 다음 네 가지 층위의 조합으로 설명된다.

첫째 기술적 본질로 빛, 렌즈, 기계적 장비, 디지털 센서, 알고리즘 등 이미지를 구성하는 인프라 전체로, 과거에는 카메라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데이터·AI·네트워크까지 포함한다.



과거는 카메라지만 현재는 데이터·AI·네트워크까지 포함(카메라 + 데이터 + 알고리즘의 결합)
위: Voxel Grid Reconstruction (공간 구조 복원) – 장면의 3D 구조(도로, 건물, 나무 등)를 복원
아래: Appearance Reconstruction (외관/이미지 복원) – 새로운 시점에서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

둘째 기호학적 본질로 도상성, 지표성, 상징성의 결합으로, 사진은 단순 이미지가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이다.
사진은 닮았기 때문에(도상) 이해되지만, 현실과 연결되기 때문에(지표) 믿어지고, 문화적 약속 속에서(상징) 의미가 굳어진다.



도상성 + 지표성 + 상징성의 결합

셋째 주체적 본질로 사진가는 이미지의 생산자이자 해석자이며, 자신의 시선·의도·사유를 투사한다.
AI 시대에는 **'주체의 위치'**가 더 중요해졌는데, 그 이유는 기술이 모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누가 왜 만드는가?'**가 본질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누가 왜 만드는가로 AI시대 일수록 주체가 중요

넷째 관계적 본질로 사진은 세상–기계–사진가–관람자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응축한다.
그래서 사진은 더 이상 **'대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미지는 유통·권력·플랫폼·신뢰 구조에서 의미를 갖으며, 사회 속에서 기능

6 AI 시대 : 사진과 이미지의 정체성 분리

사진과 AI 이미지는 **'닮은 외형'**을 가졌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사진(Photo)의 핵심(현장의 관계)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현실의 물리적 존재(무언가가 있었다), 시간의 흔적(어떤 순간이 절단되었다), 현장의 우연성(예측 불가능한 세계의 개입), 촬영자의 몸과 위치(거리/시선/리듬), 사건과의 윤리적 접촉(찍는다는 행위의 책임)으로 사진은 **'정확히 닮음'**이 아니라, 현장과 시간의 접촉이 남긴 고유한 질감이며, 그 질감은 종종 설명보다 강하게, 관람자에게 **'실재의 압력'**으로 다가온다.

사진은 현장과 시간의 흔적(존재와 시간이 만난 자리)

AI 이미지(Image)의 핵심(데이터의 문법)은 언어/데이터 기반 생성, 지표성 없음(현실 접촉 없이도 성립), 시간의 부재(셔터 순간 없음), 경험의 부재(현장 감각 없음), 확률적 구성(그럴듯함의 최적화)으로 AI 이미지는 **'현실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현실처럼 보이는 가능성을 무한히 생산하기 때문으로, 그 결과 AI 이미지는 사진의 권위를 빌리되, 사진의 조건(현장/시간/책임)과는 다른 논리로 작동한다.
결론으로 **'동일하지 않다'**를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는 사진은 존재와 시간의 흔적을 가진 기호이고, AI 이미지는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로, 둘은 동일하지 않다.

인간이 언어(프롬프트)를 주면, AI가 인플루언서, 브랜드 모델, 전문 아바타, 비즈니스 프로필 사진까지 가짜 이미지를 제작하는 시대의 구조

AI에게 명령(프롬프트)을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래픽

7 사진의 본질을 묻는 새로운 질문들

이미지 시대의 사진론은 다음의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무엇이 '현실'인가?로 현실은 관찰된 현실, 생성된 현실, 재구성된 현실로 나뉘며 사진은 이들을 모두 다룬다.

AI 생성 이미지

현실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고, 사진은 관찰된 현실, 생성된 현실, 재구성된 현실을 모두 다룬다.

둘째 무엇이 '진실성'을 보장하는가?로 진실성은 이제 출처 정보, 맥락 정보, 메타데이터, 데이터 계보학에 의해 구성된다.

가짜뉴스(허위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용 인포그래픽

이 이미지는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비판적 사고 훈련 지침이며, 출처·맥락·작성자·증거·편견을 점검하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본으로, 단순한 뉴스 팁이 아니라, 이미지 시대의 윤리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말하는데, 특히 오늘날에는 딥페이크 영상, AI 생성 이미지, 조작된 사진, 가짜 캡션이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곧 진실이 아니다'** 라는 태도로 바뀐다

셋째 누가 이미지를 만들었는가?로 사진가는 이제 기술의 운영자이며 이미지의 책임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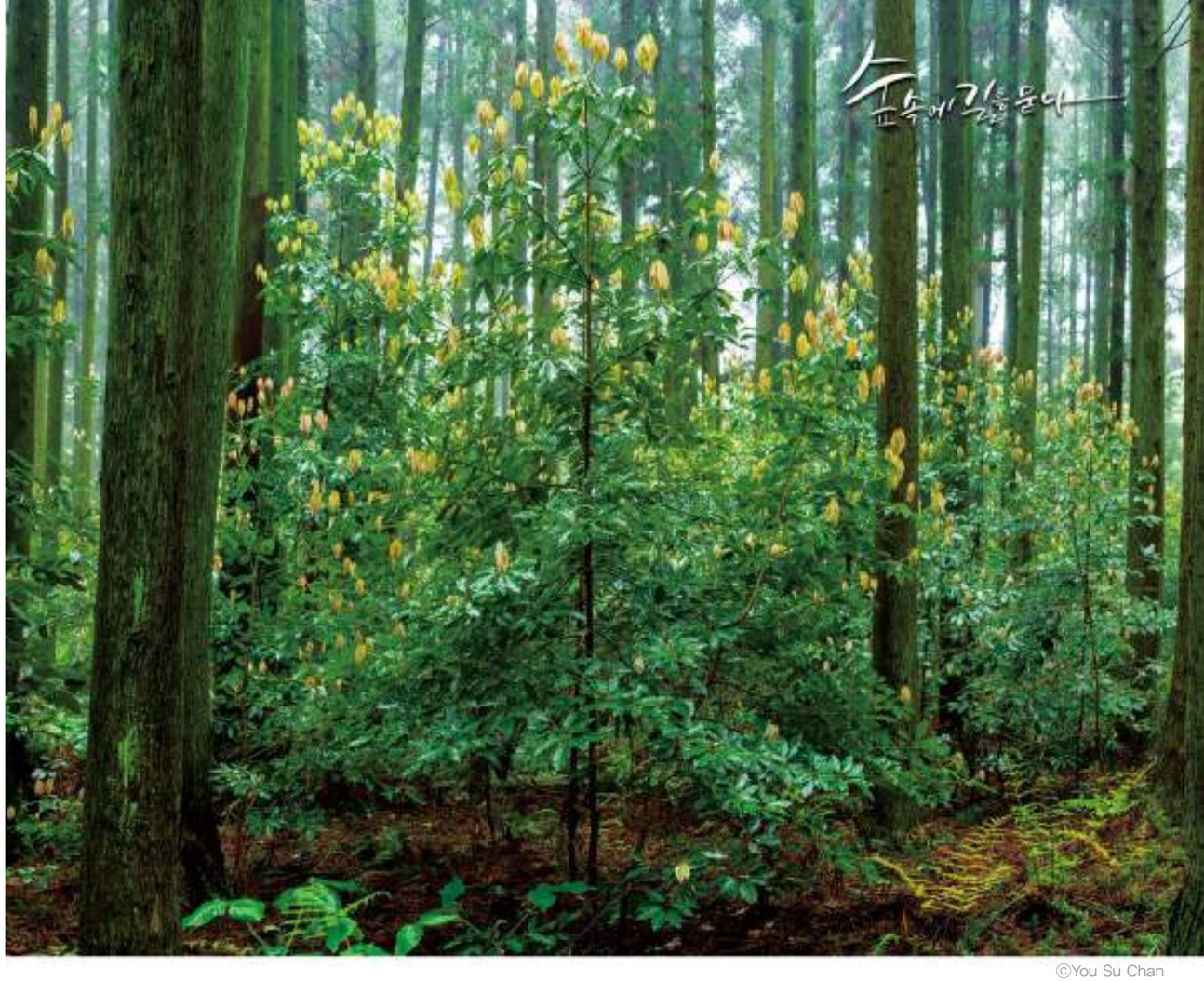
AI 이미지 시대에서는 **'주체의 위치'**가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진가는 기술의 운영자이자 책임자로 AI 시대일수록 **'누가 왜 만들었는가?'**가 본질이다. 주체의 위치가 진실성의 기준이 된다."

네 번째로 이미지 시대에 '기록'은 무엇인가?로 기록의 개념은 단순히 **'찍은 것'**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는 윤리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데, 기록은 더 이상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증명 가능한 행위가 되었다.
이 이미지는 **'기술이 매개한 법정에서, 진실과 증거가 사람의 몸이 아니라 화면과 데이터로 판단되는 시대'**를 상징한다.

8 사진의 본질 재정의(새 공식)

사진은 기술·기호·주체·관계의 네 층위가 결합하여, 세상에 대한 한 인간의 경험적 흔적을 이미지로 응축한 매체이다.
사진의 행위론적 재정의는 사진은 **'무언가가 있었다'**의 단순 증명이 아니라, 세상과 주체가 만나며 발생한 관계의 사건이다.
AI 시대의 구분 기준은 사진은 현장·시간·책임의 접촉을 포함하는 반면, **'AI 이미지는 데이터·언어·확률의 조합으로 형식을 생산'**한다.
따라서 둘은 외형이 아니라 계보와 관계에서 구별된다.



ⓒYou Su Chan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KYOTOGRAPHIE 2026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교토그래피 2026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세계 사진의 경향과 흐름을 고민해본다.
– 편집장 노성진

Dahomey Spirit(다호메이 정신)

줄리엣 아넬(프랑스) Juliette Agnel

Presented by Van Cleef & Arpels, 글 편집_노성진(편집장)

©Juliette Agnel_Dahomey Spirit

©Juliette Agnel_Dahomey Spirit

©Juliette Agnel_Dahomey Spirit

1973년에 태어난 줄리엣 아넬 파리 1-판테옹 소르본 대학교와 파리의 에콜 데 보자르에서 미술과 민족미학을 공부했다. 1990년대에는 아프리카학자 장루이 포드라에게 강의를 들었고, 마르셀 그리아울과 미셸 레리스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빅토르 세갈렌의 중국 탐험에 대한 열정을 키웠으며, 이는 그녀의 여행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영화감독이자 민족학자인 장 루슈와의 만남을 통해 10년 넘게 아프리카의 길을 탐험하게 된다. 줄리엣 아넬은 사진 자료와 자연의 광활함을 탐구하는 탐험가이기도 하다. 슈퍼 8 필름을 활용한 "Laps"와 디지털 카메라 옵스큐라를 만들어 초상화를 제작한 "Les Éblouis"라는 두 가지 사진 시리즈를 통해 흐림과 무작위성을 인간 기억의 잠재적 번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줄리엣 아넬은 풍경과 빛에 대한 시적이고 형이상학적 접근법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예술가이다.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역학을 탐구하며, 그는 밤의 어둠이나 사막, 빙하 같은 외진 지역에서도 계속 작업해왔다. 그런 장소에서 아넬 자신이 '세계의 진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착한다. 그의 작업은 철학과 인류학에서 공통적으로 공명하는 주제들과 공명하며, 시간, 신화, 빛의 존재에 대한 그의 섬세한 감정을 강조한다. 빛은 주체이자 상징이다.

Juliette Agnel
줄리엣 아넬

Presented by Van Cleef & Arpels

KYOTOGRAPHIE 2026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교토그래피 2026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세계 사진의 경향과 흐름을 고민해본다.
– 편집장 노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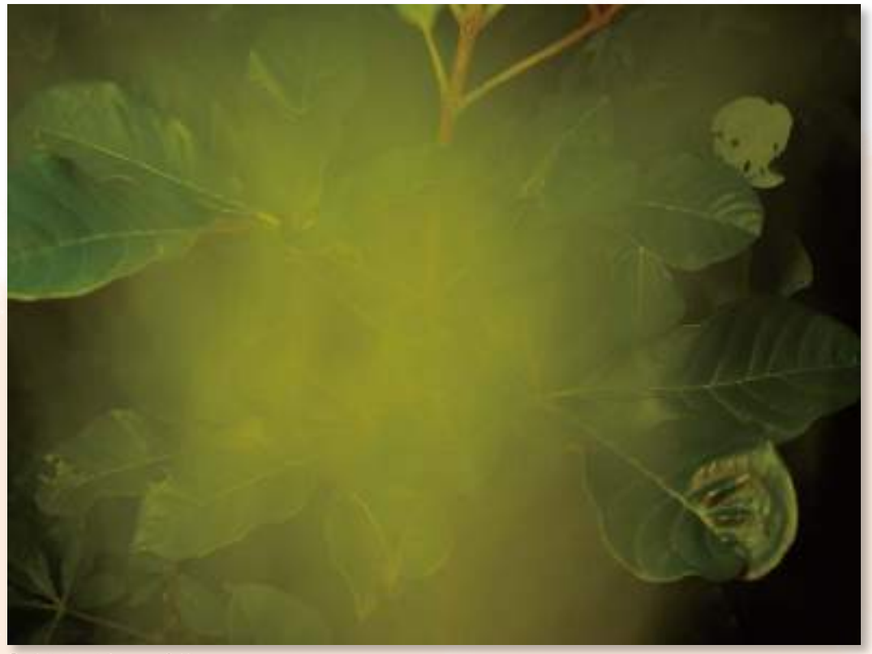
ⓒJuliette Agnel_Dahomey Spirit

ⓒJuliette Agnel_Dahomey Spirit

ⓒJuliette Agnel_Dahomey Spirit

2024년 카루젤 뒤 루브르에서 열린 “Photo Days Paris” 전시회에 발표한 Dahomey Spirit(다호메이 정신)는 현재 서남아프리카 베냉 공화국에 위치했던 다호메이 왕국(1600~1904)의 정신과 역사를 반영한 작품이다. 특히 이 지역의 Spirit(정신)은 강력한 군대로 유명한 다호메이 왕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미노 또는 다호메이 아마존으로 알려진 여성 전사들의 정신도 포함되었다. 줄리아넷 아넬의 “Dahomey Spirit”는 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시각적으로 연결 현대 예술적 관점에서 그 역사적, 영적 울림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Dahomey Spirit는 이 지역의 오싹한 본질을 파악하여 신비로운 풍경과 작가의 해석을 통해 다호메이 밀림의 기억과 왕실의 영적 유산을 담고 있다. 순수 미술 사진으로 묘사되며, 종종 신비롭거나 유령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법을 활용한다.


ⓒJuliette Agnel_Dahomey Spirit

ⓒJuliette Agnel_Dahomey Spirit

사진이 이끈 시대별 미술 흐름 한눈에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글·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전시장 전경 – 정필름 촬영,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제공

전시장 전경 – 정필름 촬영,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제공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세번째 개관 특별전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한다. 사진미술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4개의 전시실 모두를 활용해 선보이는 전관 전시로, 서울시립미술관과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소장한 작품 중 통상 한국 현대미술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1950년대 후반 이후 '사진' 혹은 '사진 이미지'를 창작의 매개로 삼은 작품들 200여 점과 자료 100여 점을 소개한다. 한국 실험미술을 대표하며 전위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작가 이승택과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이끌었던 김구림을 시작으로, 80년대 초 젊은 작가 그룹이었던 이인현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주요작가들 36명의 작품과 자료를 통해 1960년대 실험미술부터 동시대 작업까지, 사진이 견인한 한국 현대미술의 변화와 확장의 전 과정을 심도있게 마련해 놓았다.

이인현, 〈소리 I〉, 1981, 슬라이드 필름, 작가 소장

당시 실험적인 소재였던 슬라이드 상영 작품으로, 몸을 매개로 지각이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한 작업이다. 유리면 너머 희미하게 드러나는 인물은 얼굴이나 표정 같은 정체적 단서가 지워진 채 움직임, 거리, 빛의 간섭 속에서만 감지된다. 작가는 초점이 흐려지는 경계에서 대상과 주체가 서로를 인식하는 감각의 층위를 드러내고자 했다. 관람객은 그것이 '사람'임을 인지하면서도 실체를 끝내 파악할 수 없는 이미지 앞에서, 보는 몸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인식 과정을 경험한다.

이강소, 〈리퀴텍스-76122〉, 1976, 캔버스에 세리그래피, 아크릴릭, 50×65.2cm, 작가 소장

〈리퀴텍스-76122〉(1976)는 물감 튜브 이미지를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한 뒤, 캔버스의 올을 풀고, 투명 아크릴판을 덮은 위에 실제 물감을 덧칠해 완성한 작품이다. 인쇄된 이미지인 그려진 물감과 실제 물질인 현존하는 물감이 한 화면에 겹쳐지며, 회화의 리얼리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질문한다.

이승택, 〈매달린 성〉, 1962 (1980년대 프린트),
젤라틴 실버 프린트에 채색 , 27.5×59cm, 작가 소장

〈매달린 성〉은 멀리 산이 보이는 풍경 사진 위에, 같은 시기에 제작된 붉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 오지의 이미지를 오려 붙여 구성한 뒤 이를 다시 재촬영해 완성한 초기 포토몽타주 작품이다. 현실의 풍경과 일상의 사물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병치하고, 재촬영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장면으로 통합함으로써 오지가 하늘에 매달린 별처럼 떠 있는 낯선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김구림, 〈불가해의 예술〉, 1970, 『라이프(LIFE)』지 사진 이미지에 콜라주, 『공간』(1970.05)에 발표

한만영, 〈Paper work〉, 1982, 프린트에 연필, 콜라주, 64×52.5cm, 작가 소장

한만영의 1980년대 페이퍼워크로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구입한 서양 명화 포스터를 복사·오려 붙이고 그 위에 펜으로 드로잉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김홍도의 작품을 지워나가며 작업한 작품과 함께 44년 만에 재조명되는 작품으로, 동서양의 대표적 이미지를 동일한 화면 안에 끌어와 그 위계와 맥락을 교란시키며, 동서양 시각문화가 충돌하고 병존하는 지점에 대한 관심이 이미 초기부터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민정기, 〈숲을 향한 문 2〉, 1986, 종이에 석필을 이용한 스크래치, 리도용 크레용 스케치, 사진기법을 혼용한 다색석판, 56×41cm, ed.4/4,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포토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한 10점의 판화 시리즈로, 동시대 사회의 현실과 인간의 내면을 예리하게 통찰한 작가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작업 과정 또한 실험적이었다. 작업실 문 앞에 모델을 세우고, 한국 근대사와 국제 분쟁의 장면을 인용한 사진들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제작해 슬라이드 프로젝터로 모델 위에 투사해 중첩된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를 제판 원고로 삼아 석판화로 인쇄하였다. 이처럼 〈숲을 향한 문〉은 사진, 연극적 연출, 인쇄기법이 결합된 복합적 작업으로, 인간의 몸을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폭력의 투사면으로 삼은 회화적·매체적 실험이자, 냉전기 문명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 시선이 응축된 작품이다.

안창홍, 〈기념사진〉, 1985, 인화지에 아크릴릭, 드로잉 잉크, 186×267.5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안창홍의 1980년대 〈기념사진〉 시리즈 중 하나로, 작가가 고물상과 경매 사이트 등에서 수집한 오래된 단체사진을 접사 렌즈로 촬영해 확대 인화한 뒤, 그 위에 드로잉 잉크로 회화적 개입을 가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그는 사진 속 인물들의 눈과 몸 부분에 드로잉 잉크를 떨어뜨려 상처나 구멍처럼 보이게 했다. 이러한 개입은 세월의 흔적처럼 보이지만, 실은 폭력과 상실의 흔적으로, 집단 속에서 개인의 목소리와 시선이 지워지는 사회적 현실을 상징한다.

이규철, 〈공간과 시지각 1986-2〉, 1986, 나무, 종이에 인화, 31.7×52×12cm, ed.1/1,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여 운, 〈작품 74〉, 1974, 창문 틀에 신문, 사진, 콜라주, 73×115×2.52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실제 창문틀을 오브제로 사용하고, 그 위에 신문과 잡지의 사진 이미지를 콜라주한 작품이다. 작품 속 무덤처럼 쌓인 이미지는 삼류잡지의 여성 누드, 해외잡지의 케네디 대통령 등 정치인의 초상, 보수 언론사의 로고, 고급시계 광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970년대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정치적 권력과 물질주의, 소비문화, 그리고 언론의 왜곡된 현실을 상징한다.

신학철, 〈무제〉, 1967, 종이에 콜라주, 25×17.7cm, 작가 소장
신학철, 〈무제〉, 1967, 종이에 먹, 펜, 26.3×19.2cm, 작가 소장

신학철의 대학시절 작업으로, 훗날 《한국근대사》시리즈로 이어지는 이미지 차용과 콜라주 방식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초기작이다. 작가는 청계천 헌책방에서 구입한 LIFE지 등에서 오려낸 보도사진과 광고 이미지를 먹과 펜 드로잉과 결합해,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 속 인간의 욕망과 불안한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전시장 전경 – 정필름 촬영,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제공

이 전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뉘어 있는데, 1전시실에서는 형태를 가지는 것에 반하여 격정적이며 주관적이고 표현주의적 추상을 추구했던 '앵포르멜'의 열기가 가라앉으며 새로운 조형 언어가 모색되던 1960년대 초, 작가들의 실험적 시도를 통해 사진이 단순한 기록 매체의 기능을 넘어 전위적 표현 언어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전시실은 1970년대 실험미술에서 사진이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사진 기반 판화 매체 실험 등을 통해 사진이 사유, 구조, 행위 그리고 매체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전개되던 시대적 흐름을 알 수 있으며 3전시실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진 및 당시 새롭게 도입되던 슬라이드 영사 작업을 활용해 회화 중심의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조형 감각을 구축해 나가는 등 사진 중심 매체의 실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4전시실에서는 1980년대 '현실과 발언'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비판적 미술 속에서, 사진 이미지의 인용과 재배열을 통해 사진 이미지가 현실을 해석하는 강력한 언어로 작동한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작년 5월 한국 최초의 사진전문 공공미술관으로 개관한 이후 〈光彩 : 시작의 순간들〉과 〈스토리지 스토리〉를 개최했었다. 한국 사진 예술의 중심에서 사진 매체에 대한 연구와 보존, 수집, 전시, 교육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건립 동기를 증명하듯이 이 두 전시를 통해 10여 년의 준비기간 동안 축적해 온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이 현대미술에서 수행해 온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며 이를 통해 사진과 동시대 미술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현대미술에서 자리하는 사진의 과거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필름이 겹겹이 쌓인 것 같은 듯한 모습의 건물로 사진 매체 특화 미술관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필름 수장고도 구비되어 있는 이 곳에는, 사진관련 사진과 관련한 1만여권의 출판물을 갖춰놓고 한국 사진사 및 사진가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포토 라이브러리 공간도 있으니 3월에는 이미 끝나있을 이 전시가 아니더라도 사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사진전문 미술관을 한 번은 방문해 보기를 추천하며 이 전시를 소개한다.

www.studioclub.co.kr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빛힌 자지이 지신자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EXCEED YOUR VISION Can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북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EXCEED YOUR VISION Canon SINJI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실패하면 패가망신 성공하면 부국강병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이야기

글·사진제공_최승언

19세기 초 조선 백성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 없었다. 정조대왕의 승하 이후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는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렸고, 권력을 독점한 왕비 가문과 결탁한 지방 관리들의 탐욕은 극에 달했다.

1803년 가을, 강진 유배지에서 다산 정약용이 그 탐욕을 기록했다. 갈대밭 오두막에서 한 젊은 아낙의 곡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를 낳은 지 불과 사흘, 산모의 몸도 추스르지 못한 그녀가 관아 문 앞에서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있었다. 관리들이 세금을 받으려고 갓 태어난 핏덩이를 군적에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관리들은 그 집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소를 강제로 끌고 갔다. 남편은 분노와 절망에 칼을 갈았다.

"내가 이 물건 때문에 자식을 낳아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하며 스스로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극단을 선택했다.

아내는 남편의 잘린 신체를 들고 관가에 달려가 울부짖었으나 관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다산은 이 참상을 보며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갈대밭 집 젊은 아낙 곡소리도 서러워라(蘆田少婦哭聲哀), 관청 문향해 울부짖다 하늘에 호소하네(縣門向厥訴終天). 남편이 미쳤던가, 스스로 끊어버리다니(夫也雖狂不自割), 내시가 된 것도 아닌데 어찌 이리 원통한가(宦竪何曾怨有緣)."

생명은 하늘이 주신 신성한 것이요, 남녀의 결합과 출산은 대를 잇는 축복이거늘, 어찌하여 이 나라의 백성은 자식 낳은 것을 재앙으로 여겨야 한단 말인가.

국가가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대를 끊게 만드는 이 현실은 이미 정치가 아니라 학살이었다. 다산의 『애절양』은 단순한 시 한 편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몰락을 예고하는 비극의 서사시였다. 이 가렴주구(苛斂誅求)는 비단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

정약용

금을 둘러싼 통치자와 피지배자 간의 끝없는 갈등은 동서고금에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날 때 이야기다. 한 여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다. 연유를 물으니 "시아버지와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습니다"는 대답이 나왔다. 공자가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여인은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

진시황 무덤에서 발견된 병마용. 백성에게 가혹했던 진나라는 진승오광의 난으로 멸망했다

맹자의 초상화

진시황 호해

공자는 이일을 들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을 남겼다. 이 가르침은 맹자의 시대에 더욱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어졌다. 맹자는 양혜왕을 만났을 때 "사람을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왕이 "없다"고 대답하자 맹자가 다시 물었다.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느냐." 왕이 역시 "차이가 없다"고 답하자 맹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왕의 사치를 정면으로 꼬집었다.

"왕의 주방에는 기름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한데,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백성의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직접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았으나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率獸而食人)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맹자는 백성이 가난과 세금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두고 망민(罔民)이라 불렀다.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여 잡는다는 뜻이다. 국가가 백성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법과 세금으로 옥죄는 것은 통치자가 백성을 사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통찰이었다.

역사는 맹자의 경고를 무시한 군주들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진나라의 호해는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아방궁 건설과 만리장성 축조에 매달렸다. 가혹한 법 집행과 천문학적인 조세는 결국 '진승·오광의 난'이라는 최초의 대규모 농민 봉기를 불렀다. 진나라는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지 불과 15년 만에 탐욕에 눈먼 군주와 함께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유럽의 역사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사치스러운 왕실 생활과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평민들에게만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 학정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학정을 일삼은 고려 의종.
이의민에 의해 허리가 꺾여 죽음을 맞이했다.

조선말 학정에 항거하여 일아난 동학농민운동

고부군수 조병갑,
탐관오리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인물이다

가혹한 세금을 물렸다. 굶주리던 민중은 결국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고,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 속에서 왕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다. 영국의 찰스 1세 역시 의회의 동의 없는 징세를 강행하다 청교도 혁명을 초래했고, 참수형에 처해졌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고려의 의종이 조세로 인해 비극을 겪은 사례다. 그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궁궐을 짓고 연일 향락에 빠졌다. 차별받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고, 결국 그는 경주로 쫓겨나 이의민에 의해 허리가 꺾여 죽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처럼 세금을 수단으로 백성의 생존권을 침해한 왕들은 한결같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음을 역사는 증명한다.

물론 역사의 심판이 항상 즉각적인 정의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조선말 고부군수 조병갑은 만석보를 쌓고 강제로 수세를 징수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을 제공한 인물이다. 많은 이가 그가 농민군의 칼에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는 유배 후 사면되어 대한제국의 판사로 복귀했다. 심지어 자신이 탄압했던 동학의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했다. 이는 당시 조선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이다. 비록 조병갑은 71세까지 천수를 누렸으나, 역사는 그를 영원히 '탐관오리로 기록하여 만대에 걸쳐 그 죄를 묻고 있다.

그렇다면 백성이 고통의 신음이 아닌, 기쁨으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게 하는 비결은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맹자가 제안한 여민락(與民樂), 즉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한다"는 철학에 있다. 맹자는 제선왕을 만난 자리에서 진정한 통치자의 즐거움에 대해 논했다. 왕이 홀로 화려한 음악을 즐기거나 사냥터에서 유흥을 즐길 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왕은 어찌 저리 향락을 좋아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라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몰락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왕이 즐기는 음악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우리 왕께서 건강하시니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함께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왕이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민락의 정신이 조세 제도에 투영될 때 비로소 백성은 세금을 기쁘게 낸다. 조선의 대동법(大同法)은 특산물을 바치던 방납의 폐단을 없애고 토지 결수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했다. 자신이 낸 세금이 군주의 사치가 아닌, 민생 구휼과 사회 기반 시설에 투명하게 쓰인다는 신뢰가 생기면 백성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세종대왕이 공법(貢法)을 제정하며 백성 17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도 바로 백성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왕의 것으로 여긴 여민락의 실천이었다. 백성이 기쁘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가를 '빼앗는 포식자'가 아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맹자는 말했다. "백성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백성 또한 왕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고, 백성의 근심을 나의 근심으로 삼으면 백성 또한 왕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는다."

결국 『애절양』의 비극을 끝내는 열쇠는 통치자의 마음가짐에 있다. 지도자가 백성과 고락을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살찌우는 씨앗을 뿌릴 때, 백성은 세금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쁨의 헌신으로 내놓게 된다.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때 백성은 그 국가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되며, 그 것이야말로 가혹한 학정의 역사를 끊어내고 기쁜 납세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제65차 정기총회 결과

1. 개최일시: 2026년 2월 28일(토) 13시
2. 개최장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공연장
3. 성원보고 : 총 원 : 9,028명 / 출 석 : 571명 / 위 임 : 2,422명
4. 회 순
① 전차 총회록 접수 – 서면으로 대체 승인
② 경과보고 – 서면으로 대체 승인
③ 안건상정

1) 감사보고 및 2025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2)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3) 대손상각 처리의 건 – 원안 승인
– 2021년 분 미수 회비 78,150,000원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에 대해 출석회원 2,993명 중 찬성 2,986 반대 7로 승인

연 도	내 용	거 래 처 명	금 액	비 고
2021	회비		78,150,000	정권,제명 41,550,000 / 일반 36,600,000
	계		78,150,000	
합계			78,150,000	

4) 발전기금 관리규정 개정 및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의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출석회원 2,993명 중 찬성 2,955 반대 38로 영구 발전기금 관리규정 개정안과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승인

■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 발전기금 관리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운용위원회) 기금 조성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구 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하며 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임원 및 자문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임면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개최하며 조성된 기금의 운용사항을 정한다. 단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조성된 기금과 운용에 관련한 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2021.11.04. 개정)	제2조(운용위원회) 좌동 ①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하며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며 기금의 모금 및 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좌동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좌동
제5조(운용) 기금은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① 사옥 및 전시장, 연수원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부동 자산의 취득 (2018.01.25. 개정)	제5조(운용) 좌동 ① 사옥 및 전시장, 연수원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부동 자산의 임차 및 취득 ② 장학기금의 출자 ③ 회원복지사업 ④ 기타 협회가 필요한 사업
제7조(운용수익의 사용)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으며, 기금운용의 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① 장학사업 1. 회원 및 회원 자녀의 사진전공 관련 학자금지원 2. 우수한 사진관련 전공자의 학자금지원 ② 회원복지사업 ③ 기타 협회가 필요한 사업.(2018.01.25 개정)	제7조 폐기 (2024,11,21) – 제5조와 병합 –
제9조(홍보 및 보고) 사무처는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 한국사진 " 에 매월 공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8.01.25 개정)	제9조(홍보 및 보고) 사무처는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한국사진"에 매월 공고해야 한다. (2026.01.22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013.10.16. 신설) 2. 총회 승인일	

■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 발전기금 관리규정

장학재단 설립 추진 및 발전기금 출연 승인의 건

1. 제안 배경
– 협회는 사진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약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집행하고, 현재 약 3억 2천만 원의 장학기금 적립
– 그러나 현행 구조는 협회 내부 기금 운용에 기반한 방식으로, 장학사업의 지속성·안정성·대외 확장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이에 장학사업을 협회의 핵심 공익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2.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
① 발전기금의 합리적 활용
– 현재 발전기금은 주로 적립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목적사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가 있음
– 장학재단 설립은 발전기금을 단순 보유 자산이 아닌 협회의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조치임
– 발전기금을 소모하는 결정이 아니라 제도화된 공익사업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적 활용

장학재단 설립 추진 및 발전기금 출연 승인의 건

② 장학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대
- 협회 내부 기금에 의존한 장학사업은 예산 상황이나 집행 여건에 따라 연속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장학사업을 연례 예산 편성과 분리된 독립적·지속적 구조로 운영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장학사업을 선택적 사업이 아닌 협회의 상시적 핵심 사업으로 격상할 수 있음

③ 협회 대외 인지도 및 공공성 제고
- 장학재단은 협회의 공익적 성격을 외부에 명확히 드러내는 제도적 장치
- 대학 사진 관련 학과, 기업, 외부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 재단 법인 구조는 협회 단독 사업보다 신뢰도와 접근성을 높임
- 특히 기부금 영수증 발행 단체로 지정될 경우 기업 기부 및 외부 후원 유치가 가능해져 협회의 대외 인지도와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

3. 재원 조성 및 활용 방안
-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창립금은 총 5억 원의 기초 자산 필요
- 현재 장학기금 잔액은 약 3억 2천만 원으로 설립을 위해 약 2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 이에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부족분을 협회 발전기금에서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자 함
- 향후 장학재단 운영 과정에서 협회 인건비 일부를 재단 경비로 대체 집행함으로써 협회 재정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장학재단 거버넌스의 핵심
- 장학재단은 협회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이 출연되는 구조이므로 협회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거버넌스가 필수
- 이에 따라 협회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여 협회가 주도적으로 재단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은 재단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출연금과 재산은 이사회 의결 및 감독청 통제를 받도록 설계
- 해산 시 잔여재산은 협회로 귀속되어 출연 자금이 협회 목적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구조화

5. 추진사항 및 진행 방향
- 현행 발전기금 관련 규정에는 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본 안건의 추진을 위해서는 발전기금 사용 관련 규정 개정과 장학재단 설립 및 출연에 대한 총회 승인이 필요함
- 총회 승인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재단 설립 승인을 요청하고, 이후 해당 법인을 기부금 수령단체지정 허가 추진 예정
- 본 추진 과정은 관계 법령, 감독청 승인 절차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5) 기타의 건
- 사진대학 설립 구상 논의
- 제6기 사진예술대학 작가과정 모집 안내
- 2026년 대한민국사진대전 및 PASK AWARDs 개최 계획 안내

폐회_2026년 2월 28일(토) 14시 30분

조주은·윤은숙 교수
AI 디지털아트 전문과정 제2기 모집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Artificial Interlligence 이미지 생성 전문과정
(2026년 3월 26일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강좌개요

본 과정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하여 사진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보다 고급화된 내용으로 AI의 창의적인 이미지 생성, 편집,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에 이르기까지 실습 위주의 학습을 제공한다. AI 도구를 활용해 사진 촬영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생성적 AI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과 테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과정은 주차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프롬프트 작성 기술을 익혀 AI 이미지의 품질을 개선하고, 개인적인 예술적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개별 및 그룹 활동을 통해 AI와 함께하는 창의적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AI를 활용한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여 AI 기술을 통해 사진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미래 사진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크리에이터로서 AI사진응용 및 활용에 대한 도덕적인 의미 등을 고찰한다.

강좌대상

일반사진애호가, AI이미지 생성 관련자, 협회 예비회원 및 회원

모집인원 및 강의시간(2026년 상반기)

1. 모집인원 : 30명 이내 (※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2. 강의장소 :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협회 강의실
   (필히 대면수업으로 zoom 온라인 강의 병행, 단 녹화본 미제공)
3. 강의기간 : 2026년 3월 26일(목) 개강 ~ 7월 2일(목) 종강
4. 강의시간 : 1주/4시간(13:00 ~ 16:50, 3시간 강의 1시간 보충)
   총 12주 과정 48시간 이수

수강료

1. 강좌 수강비 : 80만원
2.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72899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3. 입금기한 : 2026년 4월 8일(수) 정오(수업 전) 까지
   (카드납부 가능, 계좌이체 가능, 영수증 발급 가능)

강좌 수강 혜택

1.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에게는 협회 입회 시 7점의 입회점수 부여
2. 협회 회원인 경우 200점 공모전 심사자격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수료증을 통해 점수 인정
3.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명의 수료증 발급
4. 협회와 관련된 사진 기자재 업체의 제품구매 시 할인 적용

수강생 준비물 : laptop(노트북) 또는 PC(데스크탑) 최소 필요사양, AI 생성형이미지 제작 프로그램 및 프롬프트 입력도구 등 별도의 월구독료가 발생.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최기념 만찬

유이사장, '사진계 큰 집' 자부심 갖자

글·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선정 작가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축사를 하는 조건수 고문

축사를 하는 김양평 고문

축사를 하는 최차열 부이사장

1월 30일(금) 오후 4시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55에 있는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3층 연회장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제 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최기념 만찬을 사진축전 출품자와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조건수, 김양평 고문, 최차열, 백만종, 이항룡, 김시묵 부이사장, 신현하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배택수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박철규 상임이사, 이수진 사무총장. 화훼협회 한영순 명예이사장과 임원들, 동진프레임 최복암 대표."

김형준 사무처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2025년 제10회 대회 기념비적인 대회 진행했고, 2012년 제 1회 대회 SETEC에서 진행했고, 2013년(2회)~2015년(4회) 코엑스에서, 기존 대회들은 공동 행사로 진행했고, 2018년 제 5회 DDP 2관에서 최초의 독자적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2019년 제6회 DDP 1관,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미개최, 2022년 제 7회 DDP 1관, 2023, 2024, 2025년 aT센터 전시했습니다. 서울시 일부 지원, 작가님들 덕에 전시할 수 있었고, 작년 행사는 지원금 3분의 1 축소되어 어려웠습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창작분과 위원들, 경기지회, 인천지회 간사님들이 도와주셨고, 축전 때마다 시간에 쫓기는데 노성진 부장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유수찬 이사장님의 후원금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수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도와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계의 큰집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평 이사장님께서 1억을 쾌척해 주셔서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인터넷신문사 허가를 받아서 지금 데스크를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장학기금에 관한 것도 홍보해야겠습니다. 사진예술대학이 5기까지 나갔는데 사진예술대학에서 배출된 인원들이 상당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에게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건수 고문은 격려사에서 "이 사진축전을 시작할 때는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작했습니다. DDP에 5600만원으로 계약해야 하는데 당시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갈등하고 토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비가 2천몇백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작업했습니다. 그것들이 밑받침돼서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큰 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해 주신 작가님들이 한국 사진을 이끌고 나가는 첨병 역할을 하셔서 더욱더 사랑을 발전시키고 국위 선양을 하면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사진 문화가 널리 선양되기를 바라고 저희는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작가 손영자 작가와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작가 김희구 작가와 기념촬영을 하는 조건수 고문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작가 유진희 작가와 기념촬영을 하는 김양평 고문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작가 이연숙 작가와 기념촬영을 하는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작가 이운재 작가와 기념촬영을 하는 최차열 부이사장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작가 정종관 작가와 기념촬영을 하는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작가 김현주 작가와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최기념 만찬 축하를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이사장단과 내빈들

김양평 고문이 격려사에서 "유수찬 이사장님의 기획력은 대단하십니다. 조건수 이사장님 때 시작해서 저를 거쳐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야말로 어느 예술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가장 화려하고 멋진, 그런 전시회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차열 조직위원장이 소감을 말했다.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조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유수찬 이사장님께서 사진축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신 것을 임원으로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집행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사진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으뜸 공로자는 참여 작가 여러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셔서 더욱 더 빛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한국사진작가협회가 더욱 빛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에 참가한 작가가 20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추천받고 심의를 거쳐서 올해의 축전 작가로 선정된 일곱 분에게 시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창작 지원금 50만 원씩 수여했다.

유수찬 이사장이 손영자〈빛과 그림자의 조우〉 작가에게 수여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보여줌, 5기 아카데미 졸업, 감각적이고 멋진 작품을 전시했다. 손영자 수상자가 수상 소감을 말했다. "삼각대와 아기를 업고 지고 다니면서 공원에서 사진을 찍다가 사진에 매력이 있었나 봐요. 오늘까지 카메라를 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손자가 2012년에 올림픽공원 촬영대회 때 모델도 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카메라를 들면 옛날 젊을 때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수찬 이사장님과 사진작가협회 임원님들, 사진작가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구〈내면의 변화, 다중 노출, 텍스처 오버레이 통한 심상적 이미지〉 작가에게 조건수 고문이 시상했다. 유진희〈빛의 숨결, 숲을 깨우다, 제주 반딧불이 사진〉 작가에게 김양평 고문이 시상했다. 이연숙〈흘씨, 빛을 품다, 매크로, 보케 강조, 추상 조형적 아름다움〉 작가에게 신현하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시상했다. 정종관〈갯가의 흔적, 장노출 대가, 매년 전시 참여〉 작가에게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이 시상했다. 이운재〈길 위에 사진들, 키르기스스탄 풍경,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방문〉 작가에게 최차열 조직위원장이 시상했다. 김현주〈봄 여름 가을 겨울 소나무, 사계절의 소나무 전시〉 작가에게 유수찬 이사장이 시상했다.

내빈과 임원이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최기념 만찬 축하 케이크 자르기를 했다. 오후 5시부터 뷔페식으로 만찬을 하며 정담을 나누었다. 올해 제11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을 더 멋지게 준비하자며 만찬 행사를 마쳤다.

창작, 행정 리더쉽에 학문적 권위 더했다

유수찬 이사장,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수여를 받고 있는 유수찬 이사장

유수찬 이사장이 2026년 2월 20일(금) 국립군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박사학위는 특수대학원이 아닌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사학위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엄격한 연구 설계, 학술지 게재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 체계적인 논문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난도의 학문 과정으로, 연구 역량과 이론적 완성도를 동시에 요구한다. 단순 이수 중심 과정과는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연구 중심 트랙이라는 점에서 그 성취의 무게가 다르다.

박사학위 논문은 「예술소비 촉진을 위한 내·외적 동기 요인 분석」이다. 본 연구는 예술소비를 감성적·취향적 영역에 머무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의 내적 동기인 자기실현, 심리적 만족, 문화적 정체성 등과 외적 동기인 사회적 환경, 정책적 유인, 시장 구조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동기 요인이 실제 소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예술 향유 확대 전략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완성도를 갖춘 연구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예술시장 활성화, 문화정책 설계, 관람객 개발 전략 등 실무 영역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했다. 예술소비를 단순 수요 문제가 아니라 '동기 구조'의 문제로 해석함으로써, 향후 문화예술 분야 정책 수립과 산업 전략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창작과 행정, 현장 경험을 넘어 학문적 연구 역량까지 갖춘 리더십은 협회의 정책 대응력과 대외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예술소비 활성화, 문화생태계 확장, 정책 제안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기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박사학위 취득은 개인의 학문적 성취를 넘어, 예술 현장과 학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라는 점에서 높은 의미를 갖는다.

유수찬 이사장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협회 임원진 및 회원들과 단체 기념촬영

회비납부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6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지회, 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연회비 10만원 본 협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회비 문의 : 재무팀 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로 제작)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6년 2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3.3월~26.2.26) : 143,888,471
계 : 1,253,778,157(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47,100,000 (3,355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④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⑤ 2021년 계 : 27,700,000
⑥ 2022년 계 : 32,200,000
⑦ 2023년 계 : 16,900,000
⑧ 2024년 계 : 25,900,000
⑨ 2025년 계 : 30,500,000
⑩ 2026년 계 : 7,500,000
▷ 2026년01월(75명): 7,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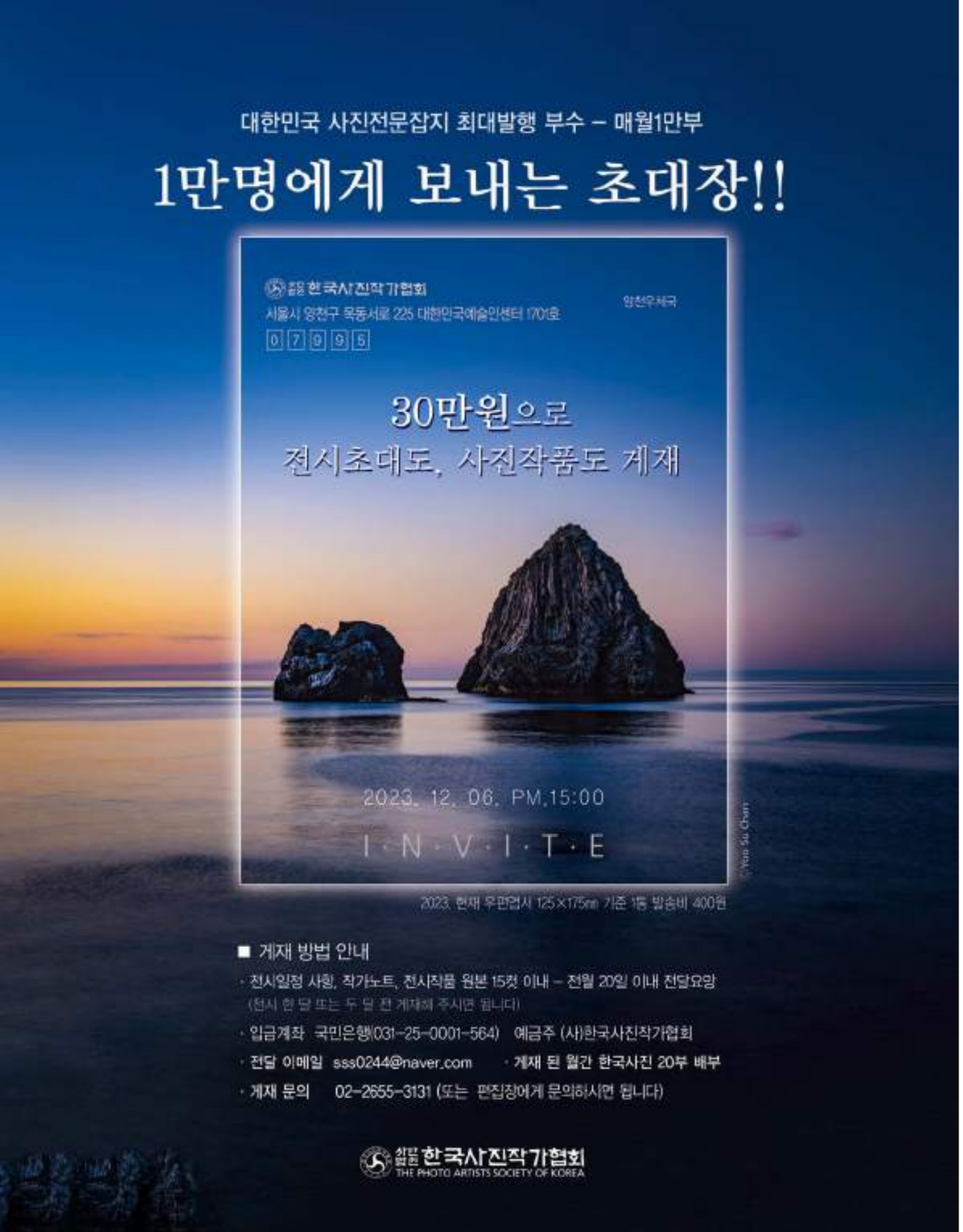
○기타 계 : 108,676,691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62,552 (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55,025,919 (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853,778,157 (a-b)

2026 전국 사진강좌 안내(3월)

사진강좌	지회.지부	강좌일시	장소
대전전국사진강좌	**대전지회**	3월 21일(토) 오후1시-5시	대전 동구문화원 4층
대구전국사진강좌	**대구지회**	4월 11일(토) 오후1시-5시	대구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의왕전국사진강좌	**의왕지부**	4월 25일(토) 오후1시-5시	계원예술대학교



교감의 언어, 문화의 무늬 : With You 곁에 있어 고마운 너

임효례 개인전

전시일시 2026년 3월 9일(월) ~ 3월 20일(금)
전시오프닝 2026년 3월 12일(목) 3시
전시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국회 Art Gallery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층 2문)
전시작가 임효례(010-9041-0088)

사진가로서 30년, 나는 렌즈를 통해 수 많은 물리적 기록을 남겨왔다. 이번 〈Dogs of the World〉와 〈With You〉 프로젝트는 나에게 단순한 기록 이상의 구원에 관한 탐구였다. 〈중략〉
사진 속 서른세 마리의 눈빛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기술의 빛(AI)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작고 따뜻한 생명의 소중함이다. 〈With You—곁에 있어 고마운 너〉라는 고백처럼, 기술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인간적인 온기를 가슴에 담아 가시길 바라며, 곁에 있어 주어 고마운 그 이름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서로의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작가노트 중에서〉

OCEAN KOREA

AURA(아우라) 개인전

전시일시 2026년 4월 1일(수) ~ 4월 6일(월)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5-6)
관람시간 10:30 ~ 18:30
전시작가 AURA(아우라, 010-5510-1570)
아우라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aurapoto
아우라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eaaura/

나의 나침반은 언제나 바다를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사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기다림의 미학'이라 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가장 완벽한 대답을 내어주는 대상은 언제나 바다였다. 〈OCEAN KOREA〉는 뷰파인더라는 작은 사각의 프레임을 통해 내가 마주했던 수만 번의 파도, 그리고 그 거대한 푸른빛의 세계에 바치는 나의 긴 연서(戀書)이자, 바다에 푹 빠져 지낸 한 사진가의 수행 기록이다. 〈중략〉

여기 걸린 사진들은 내가 훔쳐온 바다의 조각들이다. 〈OCEAN KOREA〉는 마침표가 아니라,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쉼표다. 바다는 여전히 나에게 미지의 영역이며, 탐구해야 할 우주다. 나는 앞으로도 카메라를 메고 그 푸른 경계선 위에 서 있을 것이다. 파도가 멈추지 않는 한, 나의 셔터 소리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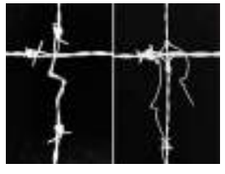
쿼크(Quarks)의 시간
최재란 초대전

'쿼크(Quarks)'는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에 따르면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요소이자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이다. 《쿼크(Quarks)의 시간》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순간 경험하고 느끼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을, 물리학의 시간 개념을 차용해 사유한 작업이다. 나는 산책 중에 만나는 자연물—떨어진 꽃잎, 열매, 작은 씨앗 등—을 줍고 채집하여 정물(Still Life)적 구성을 한 후 우주의 보이지 않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드로잉하여 시간의 방향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중략〉

광활한 우주의 작은 점인 지구에서 태어나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통해 나의 존재,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6년 3월 25일(수) ~ 3월 30일(월)
전시장소 갤러리 재재 (관람시간 10:00~19: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55-2 1층,
T.02-723-6578)
오 프 닝 2026년 3월 28일(토) 5:00 PM
전시작가 최재란(010-5522-2631)
Instagram choijaeran_photography

내 마음의 십자가 THE CROSS in my heart
장영규 개인전



내 마음의 십자가는 기호이다.
내 마음의 십자가는 상징이다.
내 마음의 십자가는 의미부여이다.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났다.

흔한 사물에서, 하찮은 사물에서
사진 기호적 해석을 하였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6년 3월 25일(수) ~ 3월 31일(화)
전시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 갤러리
전시작가 장영규(010-4817-9585)

제8회 『아름다운 영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요강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출 품 수 : 1인 6점이내
- 출 품 료 : 1인 4점이내 2만원 (추가 1점당 1만원)
- 작품내용 : 영주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아름답게 표현한 새로운 이미지 미발표작(자연경관,문화재,축제,전통문화,특산물,체험 등)
- 작품규격
  - 11"×14" 테두리 없는 컬러 및 흑백사진 (장정불요)
  - ※ 원본파일(4MB이상) 인화파일 제출(입상, 입선작에 한함)
  - ※ 2024년 1월 이후 촬영한 작품에 한함
- 접수기간 : 2026. 11. 1 ~ 11. 7.(7일간) ※11월 7일 소인 유효
- 출품요령
  - 작품뒷면에 출품표 부착
  (제목, 촬영장소, 촬영일시, 출품자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접 수 처 : 영주시 번영로 127(스카이타운 관리사무소)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지부
- 문 의 처 : 010-2004-1178 / 지부장)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심사일자/발표 : 2026. 11월 중 공개심사, 사협 및 영주시홈 페이지 게재
- 시 상 : 개별발송
- 유의사항
  - 입상, 입선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물 사용권은 주최 · 주관측에 있으며 홍보물, 출판물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
  - 입상 · 입선작은 원본파일과 인화파일을 심사발표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상권 취소됨
  - 항공사진(드론포함) 접수자는 비행허가증 첨부,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 낙선작은 우편 반송 (영주지역은 직접 수령)
  - 컴퓨터 그래픽 및 합성작, 과도한 후처리 작업, 타 공모전 입상작,타지역 작품(동일작 · 유사작)으로 판명되는 경우 상권취소 및 시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출품수 메달과 작품완성도에 따라 상훈,상금,수상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행사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음
  -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영주시의 결정에 따름
  - **입상 입선자는 파일 및 상금수령 계좌번호 · 주민번호 제출(nos5004@naver.com)**

시상내역

구 분	시 상 수	시 상 내 용	시상금계
계	47점 내외		800만원
금 상	1점 (영주시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 상	2점 (영주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십만원	100만원
동 상	2점 (영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십만원	60만원
가 작	2점 (영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십만원	40만원
입 선	40점 (영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십만원	400만원

주최 : 영주시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지부 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18회 영주전국민속사진촬영대회

행사 ▶ 2026. 5. 2.(금) 10:30 OPEN

| 작품내용 |

- 2026한국선비문화축제 ※ 행사사진 2026. 5. 2. ~ 5. 5.(4일간)
- 국·내외 미발표 자유 작
- 장소 : 선비촌, 소수서원, 선비세상

참가대상 제한없음
출 품 료 3만원
작품규격 11 × 14인치 테두리 없는 컬러 및 흑백사진(장정불요)
출 품 수 1인당 4점이내
출품방법 작품 뒷면에 제목, 우편번호, 주소, 성명, 휴대폰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접수마감 2026년 5월 19일(화) 소인 유효
접 수 처 영주시 번영로 128(스카이타운관리소)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지부
010-2004-1178 (지부장)
작품심사 2026년 6월 중 예정 공개심사 (발표는 사협홈페이지에 게재)

| 시상내용 |

금 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1점 - 영주시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 상 2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가 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지부장 상장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지부장 상장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지부장 상장 (출품수 20%이내)

• 상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지부 명의로 통장입금

| 저작권 귀속 및 기타사항 |

- 입상, 입선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물 사용권은 주최 · 주관 측에 있으며 홍보물, 출판물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은 심사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출력 파일(디지탈 사전인 경우 300dpi이상)을 제출하지 않을 시 상권이 취소됨.
- 입상, 입선작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작품집 증정
- 입상, 입선작이 합성사진으로 판명되면 상권이 취소되며 시상금은 반환해야 함.
- 항공사진(드론포함) 접수자는 비행허가증 첨부.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 다른 공모전에서 입상, 입선한 동일 작품 및 유사 모방한 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때에는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사)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입회유보 됨.
- **동상 이상자는 상금수령 계좌번호 · 주민번호 제출(nos5004@naver.com)**

문 의 처 한국사진작가협회영주지부(010-2004-1178)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지부 | 후원 영주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 20 회
용인전국사진공모전

접수기간 2026년 3월3일(화) ~ 3월31일(화) 도착분(입회접수 있음)

공모요강

- 출품자격 : 제한없음
- 출품료 : 3만원
- 작품내용 : 미발표 자유작
- 작품규격 : 11" × 14" 컬러 및 흑백
- 출품수 : 1인당 4점(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접수처 : 우)16833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67, 102동 518호(수지푸르지오월드마크)
- 연락처 : 사무국장 010-5663-4598 / 지부장 010-3119-2210
- 출품요령 : 출품표 작성 사진뒷면에 부착(제목,성명,전화번호,주소(도로명), 우편번호 꼭 기재)
- 심사일시 : 2026년 4월 23일 (목)
- 심사장소 : 용인 문화예술원 마루홀 전시실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심사결과발표 : 2026년 4월 24일(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용인지부 홈페이지 http://www.paskyongin.com/
- 작품반출 : 접수된 출품작은 일체 반출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개별 발송

시상내역

- 금상 1점 용인특례시장상(상장 및 상금 1,000,000)
- 은상 2점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상, 용인예총회장상 (상장 및 상금 각 300,000)
- 동상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용인지부장상 (상장 및 상금 각 100,000)
-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용인지부장상 (상장)
- 장려 5점
- 입선 (출품작 2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용인지부장상 (상장)

개전 및 시상일시 : 2026년 5월 6일(수) 오후4시
전시기간 : 2026년 5월6일(수) 오전 10시 ~ 5월 10일(일) 오후 4시
전시장소 : 용인 문화예술원 마루홀 전시실

유의사항

- 사협입회점수 있음
- 입상 및 입선작품중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 발견시 상권은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입회가 유보됨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작가의 소유이며 협회 또는 용인시, 지부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 (민·형사상)에 대하여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짐
- 컴퓨터 그래픽 및 지나친 색상조정으로 판명될 경우 입상, 입선이 취소됨
- 입상작은 파일을 제출 해야함 (nsryu@naver.com)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 상금은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함 (가족및 대리수상 가능)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용인지부
후원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예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2026 제33회 성남전국사진공모전

성남시

공모기간 2026. 3. 3(화) ~ 4. 2(목)
접수마감 2026. 4. 2(목) 도착기준 (입회점수 있음)

금상 이종문 (그림자)

은상 이정원 (축제)

은상 장일미 (수탉 쟁탈전)

접수처/문의처

- **접 수 마 감** : 2026. 4. 2(목) 오후 5시까지 (도착기준)
- **출품자격** : 전국 사진애호가 및 사진동호회
- **작 품 규 격** : 칼라, 흑백 11"x14"
- **출 품 수** : 1인당 4점까지
- **출 품 료** : 1인 20,000원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및 낙선작 반송)
- **출 품 요 령** : 응모하는 작품 뒷면에 제목,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접 수 처** : ㈜132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10 성남아트리움 1층 **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지부**
- **문 의 처** : 지부장 **010-9118-8445** / 사무국장 **010-2033-7362**
- **심사 및 장소** : 추후 공지
- **시상 및 전시** : 추후 공지

시상내역

- **금상** 1명 성남시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2명 성남시의회 의장상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동상** 3명 성남예총 회장상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가작** 5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지부 지부장상 상금 각 10만원
- **장려** 5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지부 지부장상 상장
- **입선** (출품작의 2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지부장 상장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및 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성남시, 협회 및 지부, 도지회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출품작의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짐을 유념하시기 바람.
- 기 발표작품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 발견시 상권이 취소되고 상장과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기타 문제작으로 발견 시 한국사진작가협회 징계규정에 의거 제재함.
- 입상작품은 심사 후 7일 이내에 작품 원본파일(3000픽셀 이상)이미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상권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상, 입선 작품은 반송하지 않으며, 낙선작품은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반송함.
  – 출품자 전원에게 컬러 작품집 증정.

주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성남지회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지부 후원 성남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51회 影像의 踏 사진콘테스트

제50회 금상
허동현 | 담쟁

공 모 요 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천지부에서는
'제51회 영상의 적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하오니
전국 사진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요령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품
작품규격	흑백, 칼라 11"×14"(규격위반은 심사에서 제외) 작품이면에 출품표 부착(작품명 / 주소 / 우편번호 / 성명 / 전화번호 기재)
출품표 및 출품수	1인당 4점이내 20,000원
접수처	(14727)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B1 한국사진작가협회부천지부
문의	032) 715-4681
접수기간	2026년 3월 1일 ~ 4월 1일 (소인유효)

심 사

일시 및 장소	2026년 4월 4일(토) 오후 1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
발표일	2026년 4월 6일(월)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부천예총 홈페이지

시상 및 전시

시상식	2026년 4월 22일(수) 16:00 /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전시일시 및 장소	2026년 4월 22일(수) – 4월 27일(월) / 송내어울마당 아리솔 갤러리
시상	금상 : 1명 ——— 부천시장상 / 상장 및 부상(2,000,000원) 은상 : 2명 ——— 부천시의회의장상 / 상장 및 부상(각 500,000원) 동상 : 3명 ——— 부천예총회장상 / 상장 및 부상(각 300,000원) 가작 : 5명 ——— 한국사협부천지부장상 / 상장 및 부상(각 100,000원) 장려상 : 5명 ——— 한국사협부천지부장상 / 상장 입선 : 출품수의 20%이내 한국사협부천지부장상 / 상장
기타	① 본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입상, 입선작을 복제, 전시, 배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② 입상 및 입선작은 원판필름 또는 파일(긴변이 3,000픽셀 이상)을 7일 이내 제출, 미제출시 상권이 취소되며 금상 수상작은 20*24 인화된 작품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주최측 메일 facokpc@hanmail.net) ③ 출품된 작품은(낙선작 포함) 반환하지 않고 작품집은 전시 후 출품자 전원에게 발송함 ④ 동일 작품 및 유사작품을 이중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입회자격이 7년 이하의 기간동안 유보됨 ⑤ 초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출품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있음 ⑥ 출품자는 작품 출품시 개인정보를 별도의 서명 없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출품함 ⑦ 입상·입선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주최 | 부천시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천지부 후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천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 사진 강좌
일시 | 5. 30.(토) 오후 2시 ~ 6시

제75회

광주신록 전국사진 촬영대회

촬영대회일시 / 2026. 4. 19.(일)

촬영장소	광주시립미술관 야외공연장 일원
참가자격	전국 사진 애호가
참 가 비	1인 3만원 (중식 제공)
신청방법	당일 현장 접수 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작품내용	대회 당일 모델 중심으로 촬영한 작품
작품규격	11 x 14인치
출 품 수	4점
접수마감	2026년 5월 15일(금) 도착분
접 수 처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20, C동 3층(농성동, 광주예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사무실 : 062) 228-4774, 사무국장 : 010-3641-0114
면 담 처	
출품요령	접수증을 작품 뒷면에 부착하고 작품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할 것
심사일시	2026년 5월 21일(목) (예정)
심사장소	광주예총 1층 백련갤러리
심사결과발표	2026년 5월 22일(금) 홈페이지 발표(예정) (광주사협 http://www.kjphoto.or.kr 및 한국사협 http://www.pask.net)
시상내역	**금 상 1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2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동 상 3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가 작 5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장려상 5 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시지회장 상장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시지회장 상장(총 출품작의 20% 내외 선정–입상작 포함)
전시기간	2026년 6월 19일(금) ~ 6월 25일(목) (예정)
시 상 식	2026년 6월 19일(금) 오후 2시 (예정)
전시장소	광주예총 1층 전시실 백련갤러리
작품반송	접수된 작품 일체 반환 하지 않고, 시상식 후 도록과 상장은 발송함. 광주 시내 거주자는 도록과 상장을 직접 수령 요망.

기타(유의) 사항

1. 입상 및 입선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로 인정 함.
2. 수상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 동안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송할 수 있음.
3. 입상자는 수상 작품 파일을 발표 후 7일 이내 kjp4774@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 취소)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후원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16회 영천 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 요강(입회점수 있음)

※ 촬영대회 2026년 4월 5일 일요일 개회식 10시 우천불구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복사꽃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아, **제16회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합니다.**
영천의 들녘을 수놓는 복사꽃은 단순한 봄 풍경을 넘어, 농부의 땀과 자연의 시간이 빚어낸 생명의 색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의 문화적 정서를 사진으로 담아내어 영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사진인 여러분께서 영천 곳곳을 걸으며 봄의 빛과 바람, 그리고 복사꽃이 전하는 감동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곧 영천의 또 다른 얼굴이 되고, 그 기록은 소중한 지역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사진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품내용

- 2026년 4월 1일~25일까지 영천복사꽃을 배경으로 한 작품
- 행사당일 모델과 복사꽃을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
- 복사꽃을 중심으로 한 주민생활상을 소재로 촬영한 작품

▶ **참가자격** : 제한 없음
▶ **출품규격** : 컬러 및 흑백사진 11 x 14인치에 한함(장정 및 대지부착 불요)
▶ **출품료 및 출품수** : 1인당 3만원 4점 이내
▶ **출품요령** : **작품이면에 참가표 부착**(촬영대회 이전이나 이후 촬영할 경우 촬영일, 촬영장소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 **접수마감** : 2026년 4월 30일 도착분
▶ **접 수 처** : (38848) 경북 영천시 법원길 18-1(1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지부
▶ **심 사** : 2026년 5월 2일 토요일 13시 (금호실내체육관: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발표** :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사협 홈페이지 및 영천지부 홈페이지
▶ **시상 및 전시장소** : 2026년 5월30일 (토요일)13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전시실(장소변경가능)

시상내용

- 금상 1점 : 영천시장 상장 및 작품매입금 150만원
- 은상 2점 : 영천시의회 의장상 상장 및 작품매입금 각 50만원
-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영천지회장상 상장 및 작품매입금 각 30만원
- 가작 5점 : 사협 영천지부장 상장
- 장려 5점(단, 출품 수의 20%이내 - 입상작 포함) - 사협 영천지부장 상장
- 입선(출품 수의 20% 이내-입상작 포함) - 사협 영천지부장 상장

기 타

- 입상 및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낙선작은 반출 없음(전시기간내 전시장에서만 반출하며, 이후 임의처분함.)
- 입상작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 원본JPG파일을 영천지부e-mail : jh56120@naver.com으로 제출.
  (도록제작용)금,은,동상,가작,장려,입선(장변3,000픽셀이상 : 미제출시 상권취소)
- 기 발표된 작품이거나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할 경우 상권은 취소됨.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됨.
- 작품제출시 과도한 포토샵 합성은 심사에서 제외함은 물론, 심사후에도 적용함.(일반적인 리터칭 작업은 인정함)
- 가작이상 입상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 불참시 상금은 수상자 명의로 영천시 장학회에 기탁함(대리인 참석가능)
- 초상권에 대한 책임은 출품자가 책임져야 함.

※ 문의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지부 지부장(010-6535-0001) 사무국장(010-9370-1798)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지부
후원/ 경상북도　영천시 · 대창면　(사)한국예총 영천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지부

계룡 전국사진공모전

마감일 : 2026년 4월 30일
(소인유효 · 입회접수인정)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
후 원 계 룡 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

출품자격 제한없음(전국사진애호가)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창작, 국내외 미 발표 자유작
작품규격 칼라 및 흑백 11"x14"(장정불요)
출 품 수 1인당 4점이내
출 품 료 1인당 2만원
접 수 처 우)32829 충남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 18-19(예총계룡지회 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
문 의 처 지부장 010-4188-0120, 부지부장 010-5081-7191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화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명기
심사일시 2026년 5월 9일(예정)
심사장소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2층) 공개심사
심사결과발표 2026년 5월 10일(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시상내역

- 금상 1점-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2점-계룡시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동상 3점-계룡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가작 5점-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장 상장
- 장려 5점-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장 상장
- 입선 출품작 수의 20% 이내(입상작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장 상장

전시개막 및 기간 2026년 5월 15일 ~ 5월 17일(3일간 예정)
전시장소 계룡문화예술의전당 2층 전시실
작품반출 작품집, 낙선작은 시상 후 개별 발송

기타(유의)사항

- 입상(선)작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 동안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작품의 초상권문제는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동일 및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사협 회원은 징계 조치 비회원은 입회 자격이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보됨
- 입상(선)작은 7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kyhjcs@hanmail.net로제출

제35회

보령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 2026. 05. 22(금) 도착분 (사협 입회접수 있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에서는 사진예술의 진흥과 사진동호인의 창작의욕을 높이며 사진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로 제35회 보령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전국의 뜻있는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작품
- **작품규격 :** 11"×14" 칼라 및 흑백 (장정불요)
- **출 품 료 :** 1인당 2만원
- **출 품 수 :** 1인 4점 이내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필히 기제
- **접수마감 :** 2026년 05월 22일(금) (도착분)
- **접 수 처 :** 우)33481 충남 보령시 송정2길 8-12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 010-3462-8233)
- **심사 및 발표 :** 심사, 2026년 06월 01일(월) 발표, 06월 03일(수) 발표 예정
  한국사협 홈페이지 www.pask.net 공모전 입상자 명단란에 공시
- **시 상 식 :** 2026년 07월 04일(토) 보령문화의 전당 (예정)
- **전시기간 :** 2026년 07월 03일(금) ~ 07월 05일(일) 보령문화의 전당
- **시상내역 :**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 은상 2점 : 보령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0,000원
  -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보령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0,000원
  -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장 상장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장 상장
  - 입 선 : 출품작품의 2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장 상장
- **기타사항 :**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
  -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향후 10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작품은 5일 이내에 원판필름 및 원본 파일 주최 측에 제출(미제출 상권 취소)
  - 입상, 입선작이 초상권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출품자가 책임져야 하고 동일작,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은 취소되며 한국사협 회원은 징계 조치, 비회원은 향후 7년 동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됨
  - 출품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입상자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 이 공모전은 보령시 지방보조사업 지원으로 진행함.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령지부

후원 : 보령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보령지회

제 16 회
제천 전국사진 촬영대회

일시 : 2026년 4월 18일 (토) 오전 10시 (입회점수 있음)

장소 : 의림지 수변무대

대회 참가자격 : 사진동호인 및 애호가
대회 장소 : 제천시 의림지 수변무대
촬영 내용 : 제천의림지 전국사진촬영대회 당일 행사장 내 모델 연출
대회 참가비 : 1인 30,000원 (출품표 포함, 중식제공)
대회 신청방법 : 현장접수 및 사전접수

■출품 안내 ■

접수마감일 : 2026년 05월 20일 - 도착분
작품내용 : 제천전국사진촬영대회 당일 행사장 내 모델 연출 촬영작품
작품규격 : 작품규격 11x14인치(컬러 및 흑백)

원서 서식파일
출품수 : 1인 4매 (규격 11x14인치)
접수처 : (우 27118) 충북 제천시 내제로 75 아르베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연락처 (문의처): 지부장 010-3454-0102 사무국장 010-2667-2107

출품요령 : 우편접수(사진뒷면에 촬영대회 접수증 복사부착)
심사일시 : 2026년 5월 23일 예정
심사방법 : 공개심사
심사결과발표 : 심사 후 사협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 금 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은 상 2점 : 제천시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동 상 3점 : 제천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가 작 5점 : 한국예총 제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장 려 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장 상장
▶ 입 선 (출품수 20%이내)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장 상장
• 시상금 원천징수제액은 수상자 부담

개전 및 시상일시: 2026년 6월 25일 오후2시 예정
시상장소 : 의림지역사박물관 예정
전시기간 : 2026년 6월25일 ~ 6월 30일(예정)
전시장소 : 의림지역사박물관 예정

■기타사항

⊙ 입상, 입선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향후10년간 복제 ,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작품, 유사작, 기발표작으로 판명될 시 상권이 취소되며 시상금은 반환,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간 입회 불허함.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 입선 및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지정된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보낼 이메일 주소 : otterkang@naver.com
⊙ 상금 원천징수액 세금 및 수수료 발생할 경우 공제후 지급.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저작권분쟁,표절문제 발생시, 모든 문제는 응모자 책임으로 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의 결정에 따른다.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후원 제천시 /제천시의회 /제천예총/(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35회
구미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6년 05월 21일(목) - 도착분(입회점수 있음)

공모요강

출품자격	대한민국 사진인 누구나
출 품 료	1인 2만원
작품규격	11" x 14" (테두리 없는 사진)
원서서식파일	다운로드 제35회 구미전국 사진공모전 출품표.hwp
출 품 수	1인 4점
접 수 처	39305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218 (구미예총 1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
문 의 처	(지부장) 010-7788-4282 / (부지부장) 010-3503-3981 / (사무국장) 010-3805-1678
출품요령	작품 뒷면 작품명, 주소(우편번호 필히 기재), 성명, 전화번호 기재 후 출품
심사일시	2025년 5월 23일(일) 13:00
심사장소	새마을 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
심사방법	공개심사
심사결과발표	심사 후 사협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금 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및 시상금 100만원
은 상	(2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상장 및 시상금 각 30만원
동 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상장 및 시상금 각 20만원
가 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상장
장 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상장
입 선	(출품작 수의 20%이내)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상장

시상식 & 전시

개전및시상일시	미정 (추후 통보)
시 상 장 소	미정 (추후 통보)
전 시 기 간	미정 (추후 통보)
전 시 장 소	구미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 & 새마을테마공원 3층 전시관 중 택일
작 품 반 출	접수된 출품작은 일체 반출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개별 발송

유의사항

- 입상 및 입선 작품은 사협 입회점수 인정
- 입상 및 입선 작품은 심사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출력파일 (해상도300dpi 3000pixels 이상의 jpg 파일로 원본 제출 (gmpask@daum.net)
-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동일작 및 유사작품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됨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도서출판 등을 할 수 있음

•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구미지부
• 후 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 25회

나주배꽃·유채꽃 전국사진촬영대회

(사)한국사협 나주지부에서는 사진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나주배꽃과 영산강변의 유채꽃을 주제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오니 사진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대회일시▶ 2026년 **4월 11일** (토) 우천불구
접수마감▶ **4월 30일** (당일소인 유효)

참 가 요 령

- ▶ 대회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오전 10시 (우천불구)
- ▶ 대회장소 : 나주시 금천면 나주배박물관(오전), 영산강변 동성 유채꽃밭(오후)
- ▶ 참 가 비 : 1인당 30,000원 (중식제공 및 작품집 증정)
- ▶ 참가자격 : 사진 애호가 누구나
- ▶ 참가신청 : 당일 현장 접수 또는 전남 나주시 중앙로 20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
- ▶ 작품내용 : 나주배, 나주명소를 배경으로 한 배꽃이 있는 작품
  행사 당일 모델과 나주배꽃, 나주배과수원 전경, 영산강변 유채꽃 촬영 작품
- ▶ 작품규격 : 컬러 또는 흑백 및 슬라이드 11 " ×14 " (장정불요), 디지털사진은 3000픽셀 이상
- ▶ 출품수량 : 2점 이상 4점 이내 (참가증을 작품 뒷면에 부착하고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화제를 명기할 것, 2점 이상은 복사 가능 / 참가증 없이 출품할 시는 4점까지 3만원)
- ▶ 접 수 처 : (우.58254) 전남 나주시 중앙로 20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
  ☎ 지부장 010-2605-4656 / 사무국장 010-9888-5600
- ▶ 접수마감 : 2026년 4월 30일(목) (당일소인 유효)
- ▶ 심 사 : 2026년 5월 15일(금) (공개심사)
- ▶ 심사발표 : 2026년 5월 18일(월) 한국사진작가협회 (http://www.pask.net)
- ▶ 작품전시 : 2026년 6월 13일(토) ~ 15일(월) 3일간
- ▶ 시상일시 : 2026년 6월 13일(토) 오후 3시 / 나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시 상 내 용

- ▶ 금상 1점 : 나주시장 상장, 작품 매입비 100만원
- ▶ 은상 2점 : 나주시의회의장 상장, 작품 매입비 각 50만원
- ▶ 동상 3점 : 나주배농협조합장 상장, 작품 매입비 각 30만원
- ▶ 가작 5점 : 나주예총회장 상장, 작품 매입비 각 10만원
- ▶ 장려상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장 상장
- ▶ 입 선 :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장 상장
  (입선작은 총 출품작 수의 20% 이내 선정-입상작 포함)

기 타 사 항

- ▶ 입상, 입선작 사협 입회점수 인정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 동일작 및 유사작품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
-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주최·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해 향후 5년간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도서출판 등을 할 수 있음
- ▶ 입상작은 작품파일을 5일 이내에 주최측에 제출 (ysk4656@hanmail.net)
-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 입상작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
후원 : 나주시, 나주시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배원예농협, 나주예총

제64회 진해군항제

제 37 회 진해벚꽃 전국사진촬영대회

제64회 진해군항제를 맞이하여 벚꽃과 어울어진 이 행사를 빛내고 사진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며 사진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사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37회 진해벚꽃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촬영일자 **2026년 3월 29일[일] 오전 9시30분(우천불구)**

- 대회장소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 웅천로 218)
- 참가자격 : 제한없음
- 출 품 료 : 1인당 3만원(당일현장접수. 농협 301-0188-2820-21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 참가신청 : 현장접수 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 작품내용 : 1) 모델부문 : 당일 대회장에서 촬영한 모델과 전경(당일모델을 중심으로 촬영한 작품 1점 이상 포함)
  2) 기록부문 : 진해군항제 기간중 촬영한 작품
- 출품규격 : 칼라 및 흑백 11x 14인치(장정불요)
- 출 품 수 : 4점

접수 마감 **2026년 4월17일 금요일[도착분]**

- 접 수 처 : (우)51679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 벚꽃로 61 (진해카메라 스튜디오)
- 연락문의 : 지부장 010-5248-8422, 사무국장 010-3709-0813.
- 출품요령 : 접수증 원본을 작품뒷면에 부착하고 나머지 작품은 복사 사본 부착 작품명,성명,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심사일자 : 2026년 4월 19일(일요일) 오후 1시
- 심사장소 : 진해문화센타 2층 컨벤션센타
- 심사발표 : 2026년 4월 20일 일요일 사협홈페이지 발표
- 시 상 : 2026년 5월 9일(도) 오후 2시 진해문화재단 1층 전시실(구.구민회관)
- 전시기간 : 2026년 5월 9일 - 11일(3일간) (예정)
- 시상내용
  -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작품매입비 100만원
  - ▶ 은상 2점 : 창원시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30만원
  - ▶ 동상 3점 : (사)진해예총지회장 상장, 작품매입비 각 10만원
  - ▶ 가작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장 상장, 부상
  - ▶ 장려상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장 상장
  - ▶ 입 선 :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장 상장
  (입선작은 총 출품작 수의 20%이내 선정-입상작 포함)

기타사항

- ▶ 입상, 입선작은 사협 입회점수 인정 ▶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 동일작 및 유사작품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됨 ▶ 과도한 디지털 합성 및 수정작은 심사에서 제외됨
-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도서출판 등을 할 수 있음
-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음.**(상장은 시상후 우편우송)**
- ▶ 입선,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5일 이내에 출력파일 3000픽셀이상 (E-Mail: **jonguo@hanmail.net**) 제출해야함.(이제출시 상권이 취소됨.)
- ▶ 입상작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문의 사항은 진해지부장(010-5248-8422)으로 문의

주체. 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
후 원 : 창원특례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코리아 미글 뉴스

향수 제27회 사진전국공모전

옥천이 낳은 현대시인의 거성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제39회 지용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시·향수를 주제로 전국사진공모전을 실시하오니 사진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마감 : 2026년 4월 13일 (당일소인 유효)

응모자격 전국 사진애호가

작품내용 향수(고향, 전통놀이, 문화, 경노, 풍습, 효, 옛 정취)를 연상하는 풍경이나 연관된 창작사진(미 발표작)

작품규격 흑백 및 칼라 11"×14" [규격엄수]

출 품 료 1인당 20,000원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출품방법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기재

접수마감 2026년 4월 13일 (당일소인 유효)

접 수 처 [29039]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5 (옥천문화원 內) 한국사진작가협회 옥천지부 (☎043-733-3060, Fax. 043-733-4410) 지부장_ 010-9554-6021

심사발표 한사협 홈페이지 및 옥천지부 카페 공지

작품전시 지용제 행사장

전시장소 지용제 행사장 (상설전시장)

기 타

-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있음.
- ☞ 수상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사업 목적에 한해 일정 기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후 모든 수상자는 5일 이내에 이메일 (jwpark58@hanmail.net)로 원본 파일을 3,000×2,000pixel 이상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는 상권 취소됨)

주의사항

- ☞ 각종 공모전에서 동일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됨.
- ☞ 금 · 은 · 동 수상자는 시상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 ☞ 입선은 출품작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 ☞ 수상작과 관련하여 초상권 분쟁 시 출품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반송함.

시상내용

구 분	점 수	시 상	시 상 자
금	1	한사협 이사장 상장 및 작품 매입비 100만원	한사협 이사장
은	2	옥천군수, 옥천군의회 의장 상장 및 작품 매입비 각 50만원	옥천군수, 옥천군의회 의장
동	3	옥천지부장, 옥천예총지회장옥천문화원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20만원	한사협 옥천지부장, 옥천예총지회장, 옥천문화원장
가작	5	옥천지부장 상장	한사협 옥천지부장
장려	5	옥천지부장 상장	한사협 옥천지부장
입선	출품수 20% 이내	옥천지부장 상장	한사협 옥천지부장

주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옥천지부 후원 | 옥천군 · 옥천군의회 · 옥천예총 · 옥천문화원

당진문화도시 Cultural City Dangjin

"문화가 생활이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당진"

제22회 당진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 2026. 4. 10.(금) 당일소인유효

(사)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에서는 제22회 당진전국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요령

출품자격 제한없음

출품료 1인당 20,000원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으로 국내외 미발표 작품

작품규격 흑백 및 컬러 11" × 14"에 한함(패널불요)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접수처 (우. 31776)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172
(사) 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
지부장 010-5432-5656/사무국장 010-3398-4499
TEL. (041)357-4567, FAX. (041)357-4567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입

접수 기간 및 마감일 2026년 3월 10일 ~ 4월 10일(금) 까지 당일소인유효

심사전시

심사발표 2026년 4월 17일 예정(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상장 및 상품(해나루쌀 30kg 1포)
은상 2점 - 당진시장 · 당진시의회의장 상장 및 각 상품(해나루쌀 20kg 1포씩)
동상 3점 -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및 각 상품(해나루쌀 10kg 1포씩)
가작 5점 -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장려 5점 -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입선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출품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전시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전시기간 4월 중 예정

기타사항

작품반출
기 타
- 출품자 전원에게 컬러 작품집 증정.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선정된 작품은 당진시와 사협 당진지부에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기 발표된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 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는 물론 상장을 즉시 반환, 회원은 징계하며 비회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자격이 7년간 유보됨.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당진지부

후원 | 당진시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한국사진작가협회

제39회
충주전국 사진공모전

2026. 3. 11. 도착분(입회점수 있음)

작품내용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출품자격	전국 사진인
작품규격	11" x 14" 컬러 및 흑백사진
출 품 수	1인 4점 이내
출 품 료	1인 20,000원
출품방법	작품 뒷면에 제목,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출품표 부착
접수마감	2026년 3월 11일 도착분
접 수 처	27368 충북 충주시 관아5길 10 (예총회관 2층)
문 의	지부장 010-9688-3357, 사무국장 010-6296-2560
심사발표	2026년 3월 중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충주지부 카페(https://cafe.daum.net/cjpask)/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시 상 식	2026년 4월 11일(토) 오후2시 예정
시상내역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2점** : 충주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동상 3점** : 충주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가작 5점** :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충주지회장 상장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주지부장 상장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주지부장 상장 (출품수의 20% 이내[입상작 포함])

육추(育雛)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육추(育雛): 알에서 깐 새끼를 키우는 것

기타사항

◆◆ 출품 유의사항 : **육추**(育雛)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함 ◆◆

- 금, 은, 동 입상자는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16" x 20" 사진을 인화 제출하여야 함.
- 입상 및 입선작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작품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E-mail : billssun@naver.com)
- 수상작품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지며,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고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출품작이 기발표작 및 유사작으로 판명 시 상권을 취소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함.
- 출품작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시 종료 후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개별 발송함.
- 입상 및 입선작은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으며 판단여부는 주최측 결정에 따른다.

■ 주최·주관_(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주지부 ■ 후원_ 충주시 충주시의회 (사)충주예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 500

정품무한잉크

4×6 2,100장 출력가능

Wifi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8050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만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물지급)
개인용	L8050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포토프린터&정품잉크	원목액자	사진용지	축제·행사 장비대여
Canon EPSON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	Natural, Brown 11R=6,600원	Canon EPSON SINJI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1분 출력 + 촬영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SINJI No.1 사진관 출력 기자재 Photo Paper · Photo Printer · 정품잉크 · 정품용지 · 액자·원부·원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협력업체

전국 예술학부 20여학과 납품

#1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www.studioclub.co.kr
010-2253-2786

Jeju Fire Festival

2026 제주들불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제주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제주들불축제가 '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라는 주제로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주시에서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재조명하고 들불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합니다. 사진을 통한 제주들불축제 홍보와 사진인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13(금) ▶ 3. 14(토) 2일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행사장 일원

출품자격 : 전국 사진애호가 및 외국인 등 제한없음

응모방법

- 작품내용 : 2026년도 제주들불축제 행사를 담은 사진작품(행사사진 이외 접수 불가)
- 작품규격 : 컬러 및 흑백 11"×14"(추후 수상작은 5Mbyte 이상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 출품수 및 출품료 : 1인 4점 이내 / 1인당 20,000원
-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출품표(작품명, 성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부착, 제출
- 접수마감 : 2026년 4월 13일(월)(당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 수 처 : (우)63268 제주도 제주시 신산로4길 22-1, 1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064-702-7117)
- 심사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오후 1시(제주시청 별관 대회의실)(예정)
- 심사발표 : 2026년 4월 16일(목)(제주시 홈페이지 www.jejusi.go.kr) 및 개별통보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홈페이지(www.jejupask.com)
- 시 상 식 : 2026년 5월초 예정

시상내역

금상 1점	제주시장 상패 및 상금	150만원
은상 2점	제주시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	제주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기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상장	
장려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상장	
입선	출품수 20%이내(입상작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상장	

기타사항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입회 점수 인정, 작품의 초상권은 출품자가 책임져야 함.
- 입상 및 입선자는 심사 발표 후 5일내 사진파일 제출(이메일 jejupask@gmail.com)
- 입선 및 입상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고, 제주시와 사협 제주도지회에서 전시, 복제, 배포, 공중 송신, 아카이빙, 도서제작, 온라인게시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공모전의 낙선작 및 작품집 배부 등은 사협 제주도지회로 문의 바람.
- 합성사진은 일체 접수가 불가하며, 심사 이후라도 합성작품으로 판명될 시 상권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사진촬영대회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입상권에서는 홍보에 유용한 사진 위주로 선별(인물위주 작품은 가급적 배제)
- 심사위원들의 심사 협의에 따라 해당 상(賞)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촬영대회 관련문의 : 지회장 010-3691-6286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